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두움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음을 믿고, 더욱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9월 10일 (토) 제 1889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인터넷 시대에서 청소년 제자 만들기 할 수 있다!

퓨리서치/TGC, 우리가 알아야 할 청소년과 소셜미디어 현황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있겠지만,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와 틱톡이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

기 있는 소셜미디어이다(Teens, Social Media and Technology 2022: TikTok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top online platforms for U.S. teens, while the share of teens who use Facebook has fallen sharply).

우리가 이 통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맺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가 활성화 하던 초창기에 청소년들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 방향을 결정했다. 새로운 앱의 성공 여부는 청소년이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에서 문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콘텐츠들도 청소년 이용자들이 만들고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녀들, 교회 청소년이든, 아니면 우리가 돌보는 청소년이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5 New Stats You Should Know About Teens and Social Media).

1. 청소년 95%가 유튜브를 사용한다. 그중 19%는 “거의



항상” 사용한다.

사실 유튜브는 전통적 의미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보다는 TV 대체품처럼 보이지만 유튜브는 분명히 소셜미디어이다.

퓨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나이, 성별, 인종,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섯 명에 한 명꼴로 “거의 항상”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다섯에 한 명이 “거의 항상” 유튜브를 보거나 이 용한다. 현재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

장 영향력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웹사이트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퓨 리서치의 2021년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1퍼센트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가히 유튜브는 소셜미디어 세계의 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는 IT 기업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검색엔진이기도 하다.

2. 청소년 67%가 틱톡을 사용한다. 62%는 인스타그램을, 59%는 스냅챗을 사용한다.

아마도 미국 청소년의 95퍼센트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2014-15년에는 73%)만큼이나 놀라운 통계는 틱톡 관련 통계일 것이다. 틱톡이 지금의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틱톡의 인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놀라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틱톡이 청소년 사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단기간에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을 추월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사실 6년 전에 퓨 리서치에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틱톡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3면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사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의 대처 방안 소개

우리는 오늘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 지역 교회 수준에서는 그 영향을 맞닥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최근 40년 이상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교회 안의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수수료를 어떻게, 얼마쯤 인상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미국 노동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7%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리더로서, 리치 비치(Rich Birch, 목회 생산성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기 있는 연사이자 컨설턴트) 목사는 이런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 Leadership Hedges Against Inflation for Your Church).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차이점 이해

간단히 말해, 인플레이션은 국가 전체의 지불력을 약화시킨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상품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급여는 이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 전체가 기존 자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선종욱 목사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과 기쁨
말씀을 묵상하며 켈리를 배우는 켈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2022년 제5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2022 5TH WORLD MISSION CONFERENCE

중단없는 선교

God's Mission Never Stops

저녁 집회

- 10월 5일 수: 류영렬 목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 10월 6일 목: 최종상 선교사, AMNOS Ministries
- 10월 7일 금: 호기성 목사, 필라델피아교회/PGM 국제대표

선교세미나

10. 6. THU

- 필라델피아교회 PGM 국제대표
- PGM 한국본부장 한국 다민족선교
-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PGM 부이사장
-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 샬롯제일장로교회

10. 7. FRI

-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PGM 제4대 이사장
- 안디옥 스페니쉬교회 PGM 파송선교사
- 안디옥 다민족열방교회 PGM 파송선교사
- 발리한인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 한마음 RTP교회

일시: 2022년 10월5일(수) - 7일(금) 선교세미나 및 선교강의 오전 9시- 5시30분 | 저녁집회 오후 7시 30분

장소: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 318 Stage Coach Trail, Greensboro, NC 27409

장황: GSO 공항이용 (GSO 공항이용이 어려운 경우 RDU 공항이용) | 그 외 공항이용시 라이드 개별준비

등록비: 개인 \$300, 부부 (2인) \$500 (숙식포함) | 지역등록 \$100 (식대포함)

문의: PGM 국제본부 admin@pgmusa.org

QR 코드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발행인 칼럼

바람이 분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해변에도 묘지가 있는가? 있다. 해변에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던가. 많은 바람이 해변으로 달려와 슬픈 묘지를 만들어 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뺐다. 해변뿐이 아니다. 9월의 가을을 정겹게 맞이하려 했는데 그 초순은 매우 거칠게 다가왔다. 특별히 태풍 '힌남노'는 여름을 완전히 밀어내면서 한국의 제주도도 동남부를 강타하여 큰 피해를 남겼다. 번듯했던 집과 건물들이 침수되고, 멋진 빌라가 가라앉고, 잘 자란 나무들은 부러지고 뽑히며, 불을 밝히던 전선들은 끊기고, 멀쩡한 길도 사라졌다. 태풍 직전까지도 품 잡고 달

리던 차들은 이리저리 널브러졌고 사람들도 죽었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려갔던 사람 여럿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힌남노'가 잠시 지나갔을 뿐인데 그 자리는 묘지, 그 자체였다. 바람은 다시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만든 묘지는 너무나 비통하다.

'해변의 묘지'는 해변에서 자라난 풀 발레리의 시(詩)이다. 24개의 연작으로 된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비둘기들 노니는 저 고요한 지붕은/ 질척인다 소나무들 사이에서, 무덤들 사이에서/ 공정한 정오는 여기서 불길로 쫓다. 쉼 없이 되살아나는 바다를!..." 이 시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그 결론은 죽음이 아니다. 묘지의 황량함이 아니다. 뜻밖에도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맺어진다.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거대한 대기는 내 책을 펼쳤다, 또다시 답는다/ 가루가 된 파도는 바위로부터 굳게 튀어나온다/ 날아가라, 온통 눈부신 책장들이여/ 부숴라, 파도여! 튀노는 물살로 부숴 버려라/ 뚫단배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 잠잠한 지붕을!" 그렇다. 바람이 꼭 넘어뜨리고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바람도 있다. 그런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령의 바람을 '프뉴마'라고 부른다. '프뉴마'는 태풍이라는 말로도 다 담아내지 못할 더 강력한 바람이다. '프뉴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힌남노'와 견줄 수 없는 것들이 남는다. 상상치 못할 일들을 펼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프뉴마', 곧 성령의 바람은 황무한 곳에 회개, 변화, 능력, 부흥의 새날을 일으킨다.

바람이 불어야겠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겠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겠다. 해변에 묘지를 만드는 바람을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자. 그런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을 사모하자. 세상에 묘지를 만드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절망의 묘지를 다시 열어 소망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 있지 않은가. 9월은 태풍의 계절. 묘지의 계절? 아니, 9월은 부흥의 계절, 생명의 계절이다. 그래서 나지막이 외친다. "바람이 분다----살아야겠다!"

“직장에서 핵심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BBC, '조용한 퇴직'의 유행은 코로나19로 달라진, 더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도

주어진 일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이 널리 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낯설지 않은 현상이지만 왜 요즘 들어 새롭게 주목받는 것일까. 현 상황을 통해 직장과 근무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영국 런던에서 PR 전문가로 활동하는 켈마(25)는 어느 월요일 아침 자신의 직장 생활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당시 마감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메일함을 열어보니 상사로부터 여러 부정적인 이메일이 와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켈마는 퇴사하지 않았다. 자신의 현재 맡은 업무를 계속하되, 더 애쓰지 않기로 했다. "내 안의 불꽃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최소한만 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엔 업무 시작 몇 시간 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었지만 이제 아침 9시가 돼야 접속합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칼같이 모든 업무를 종료합니다."

이른바 '조용히 퇴직'한 것이다. '조용한 퇴직'은 처음 틱톡에서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로 'zckhillin'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올해 7월 어느 영상을 올리며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조회수 350만을 기록 중이다.

이 영상에 따르면 '조용한 퇴직'은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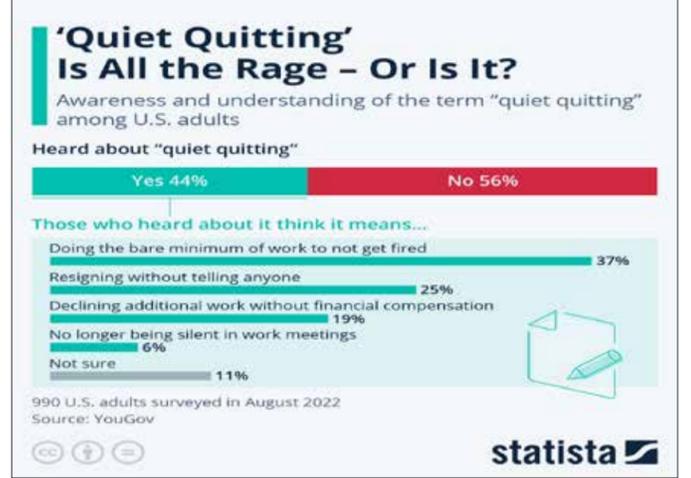
즉 "여전히 많은 일을 하지만, 업무가 삶의 전부이며 개인 생활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사람의 가치는 노동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켈마는 이 '조용한 퇴직'이 시대상을 잘 포착한다고 느낀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물가는 상승하는 가운데 직원들은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번다고 느끼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질린 것 같다"는 켈마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껏 버는 돈보다 많이 일해왔다는 걸 느낀 것 같다. 그 누구도 자신을 번아웃(무기력증) 상태까지 몰아부쳐선 안된다. 걱정되는 수준의 월급을 위해 말이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조용한 퇴직'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직장 문화에 대한 탐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용한 퇴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새로울지 모르지만, 이 용어 이면의 개념은 사실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앤서니 클로츠 경영대학원 부교수의 설명이다.



"젊은 세대의 것이나 새로운 용어로 포장됐으나 일탈, 근무 태만, 부실 업무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존재한 트렌드"라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여러 이유로 항상 직장에서 그저 그럭저럭 일하며 버티려고 했다는 게 클로츠 교수의 설명이다.

"당장 퇴사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다른 곳에선 누릴 수 없는 업무 유연성이나 혜택을 쌓았거나, 다른 기회가 부족할 정도로 집단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또한 퇴사하지 않고 그럭저럭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경제가 둔화하면 고용 시장이 악화하면서 퇴사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발전이나 커리어를 우선시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대중 적당히 일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클로츠 교수는 "주어진 업무 이상의 일을 하는 건 정신 소모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는다"면서 "그리고 자신이 회사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상받지 못하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조용한 퇴직'은 젊은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 직장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퇴사할 이유는 거의 없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중 적당히 일하는 방식과 달리 '조용한 퇴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에서 매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정시 근무하는 기본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클로츠 교수의 설명이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 늦게까지 일하고, 자신의 업무를 희생해가며 다른 동료의 업무를 돕고, 최대한 많은 바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직엔 발전의 기회가 되지만 직원 개인에게는 손실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클로츠 교수는 특히 현재 '조용한 퇴직'이 유행하는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신 건강에 대해 늘어난 대중의 관심을 꼽았다.

클로츠 교수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번아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조용한 퇴직'은 해야 할 일만 하겠다는, 경계선을 다시 긋는 행동입니다. 24시간 내내 일에만 몰두하는 대신 삶의 다른 부분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쏟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래서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말합니다."

업무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자는 개념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클로츠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조용한 퇴직' 유행은 코로나 19 이후 근로자들의 커리어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노동 자체에 대한 반항이라고보다는 긴 근무 일수, 무보수 초과근무, 조직에 봉사하기 위해 언제나 출근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과 개인적인 삶의 경계를 재정립해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

클로츠 교수는 "지금의 '조용한 퇴직'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순간을 엿볼 수 있다. 가족, 친구, 취미를 위해 시간을 쏟기 위해 일이 차지하는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커리어를 쌓아나가길 원하지만, 동시에 일 외적인 부분에서도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 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켈마는 '조용한 퇴직'을 시작한 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며, 다른 활동에도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몇 달간 코바늘 뜨개질을 배워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까지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계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인터넷 시대에서 청소년...

(1면에서 계속)

청소년 사이에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의 이용률도 2014-15년 조사(각각 10%, 18%)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틱톡이 이들 두 소셜미디어를 빠르게 추월하며 등장한 것은 매우 인상 깊다.

물론 틱톡은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점부터 중국 정부와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틱톡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원래 바이(Vine)이라는 소셜미디어를 가장 좋아했다. 그런데 2017년 1월 트위터가 바이를 폐쇄한 후에 비디오 클립 시장에서 틱톡이 바이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2014-15년 조사에서 바이는 미국 청소년의 24퍼센트만 사용하던 소셜미디어인데, 현재 틱톡은 67퍼센트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3. 청소년 46%가 '거의 항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항상 온라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들이 일어나 공부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항상이나 사진을 즐기는 데 하루 7시간 넘게 사용한다. 또한, 60퍼센트가 넘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루 4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항상 온라인에 있는 그들을 두고 데렉 톰슨(Derek Thompson)은 그의 책 히트 메이커(Hit Makers)에서 청소년들은 "항상 그 복도"에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판 학교 복도나 식당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관심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많은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4. 청소년 36%가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고 말한다.

청소년 46%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48%의 청소년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낸다고 말하는 청소년은 36%밖에 되지 않는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많은(15-17세) 청소년일수록 어린(13-14세) 청소년보다 자신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낸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 중에서는 42%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어린 청소년 중에서는 고작 28%만 같은 말을 한다. 여기서 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어린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더 적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것에 대하여 더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5. 단 32%의 청소년만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2014-15년에는 71%가 사용했다.

이는 그리 놀라운 통계는 아니지만 주목해 볼 만한 통계이다. "무엇이든 빨리 만들고 빨리 파괴한다"는 신념으로 온갖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황소 같았던 실리콘 밸

리 괴물은 청소년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페이스북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2012년에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이는 2018년에 1,000억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스냅챗을 3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노력했다(스냅챗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현재 170억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지주회사인 메타는 주력 사이트인 페이스북에서 젊은 이용자들을 잃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틱톡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시도가 사용자들을 실

망케 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데 가장 강력한 맞수가 될 수 있다. 부모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압도적인 화려함으로 쉬지 않고 항상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소셜미디어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습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 30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되

개 뒀다는 것이다. "언제나 '근무 태세'를 갖춰야만 했던 기존 관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켈마의 설명이다. "직장에서 핵심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청소년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돌보는 청소년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오프라인 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당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소한 그들의 친구들에게 인터넷이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늘 온라인에 있는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한다고 해서 그들을 강제로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은 소셜미디어 밖에 있는, 더 아름답고 좋은 오프라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와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어쩌면 최고의 방법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내 주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성경 공부, 예배, 공동체 모임에 청소년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청소년을 제자 삼는 일은 마치 물총을 가지고 불난 집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의지하면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론: 지금이 몇 시입니까?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자연세계를 통해서 - 매년 지구촌에서는 새로운 기록들이 나오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가장 특이한 기록들은 단연코 기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500년 만에 일어난 극단적인 유럽의 가뭄 현상과 1,0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다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사막의 폭우는 지구촌에 몰아치고 있는 기후변화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현상이 아닐 것으로 비춰집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이 매년 조금씩 더 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인류는 기후라는 자연현상에 의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지구온난화라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네이처 저널은 지난 1,600년 동안 대서양 해류의 순환을 연구하기 위해 해수면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물 구성성분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해류 순환의 변화를 발견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적도지역과 극지방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해류 흐름의 약화는 지난 1,000여 년 동안에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초래된 극지방의 얼음 녹은 물로 인해 북반구의 극지방 바닷물은 염분농도와 밀도가 낮은 해수로 바뀌어 해수면의 상층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적도지역의 뜨거운 해수와 극지방의 차가운 해수 사이에 일어나는 해류순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AMOC(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장애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거대한 자연의 변화는 곧바로 지구촌에 이상기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통해서 - 지난 5월에 있었던 세계경제포럼(WEF),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보스포럼에 참여했던 기업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던 세계화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화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투자자들은 더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을 찾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이었지만 세계화가 저물어 가는 지금은 투자할 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그나라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가?'라는 세계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원칙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즉 국경을 넘어 어느 곳에든 돈이 되는 곳이면 투자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리쇼어링(Re-shoring), 곧 자국의 국경선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촌의 경제는 훨씬 더 높은 투자비용과 이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세계화의 끝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지구촌에서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선택의 자유는 완벽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각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음이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州) 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혹은 법인체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로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위성자들로부터 케케묵은 성경 교리에 집착한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젊잖고 우아한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이용한 박해의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음을 직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게 박혀 듭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고 지구촌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hankschoi@gmail.com

직장에서 핵심 성과 지표...

(2면에서 계속)

"언제나 직장에서 곤란해지면 어떡할지, 내가 과업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날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했다"는 켈마는 "

그러나 이전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보냈던 직장에서도 훨씬 더 보람찬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이전보다 훨씬 덜하다"면서 새로운 관심사를 찾게 돼 만족스럽다고 전했

다. 이렇듯 '조용한 퇴직'의 유행은 코로나19로 달라진, 더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즉, 많은 근로자들이 삶에서 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과 개인적인 삶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재정의하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북크리켓교회', '뉴욕새사람교회', etc.



목장일기

모성애를 넘어서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어느 엄마와 아들이 놀이공원에 갔다. 엄마가 앞장서서 매표원에게 큰소리로 외쳤다. “어른 하나! 애들 하나요!” 매표원이 되물었다. “애가 몇 살인가요?” 이 엄마 잠시 망설이더니... “글쎄~ 네 아들이 이제 70이 됐냐? 안됐냐?” 했답니다. 모든 자식은 엄마의 동지에 담긴 새끼일 뿐이다. 자식을 무의식을 사랑하고 때놓을 수 없는 모성애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이 모성애가 교육과 연결되면 틀림없이 치마바람을 일으킨다. 미국 엄마들의 모성적인 치마바람도 대단했다고 한다. 언젠가 뉴욕 업스테이트 베어 마운틴 자락에 있는 웨스트포인트의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관광을 했을 때에 교수 부인들이 관광 안내를 하면서 얘기이다.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늠름한 새끼 새들이 성장해서 이제 사관

생도가 되었는데도 어미 새들은 새끼 새들이 낳고 간 빈 둥지만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캔사즈 애빌린에서 뉴욕으로 날아온 어미 새들은 자식들이 잘 보이는 사관학교 건너편 높은 언덕의 주택들 때에 교수 부인들이 관광 안내를 하면서 얘기이다.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늠름한 새끼 새들이 성장해서 이제 사관

마바람의 선두주자로는 단연 메리 핑키라는 맥아더와 아이젠하워 생도의 어미 새들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일겨수일투족을 지켰지만 새끼 새들은 몰래 학교를 벗어나 베어 마운틴 산장 호텔 바에서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다가 들켜서 벌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제 뉴욕의 어미 새들도 멀리 대학으로 날아간 새끼 새들이 낳고 간 빈 둥지들만 바라보는 계절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잉태와 출산과 양육의 특권을 누린 어미 새들이 분신 같은 새끼들을 떠나보내고 허탈함에 빠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 방을 봐도, 저 방을 봐도 낳고 떠난 새끼들의 빈 둥지 들뿐이다. 온몸에 기운이 돌지를 않는다. 전신이 힘이 없어졌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른다. 그리고 온종일 눈앞에 멀리 떠난 새끼들

모습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다. 매사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늘 엄마 품에 끼고 살았던 새끼들이 날개 짓을 하고 멀리 날아가 버릴 때 성숙한 어미 새들은 즉시로 빈 둥지를 헐어버린다고 한다. 이 결단 있는 어미 새들의 교훈을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엄마들이 배워야 할 것이다.

빈 둥지 증후군이 심해지면 우울증과 자아 상실증까지 겹쳐서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자식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엄마들 자신의 정체성이 빠져나가 버린 상태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제 엄마들은 과감하게 새끼 새들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믿음으로 잘라버려야 한다. 이제는 어미들이 스스로 삭발을 하고 속세를 떠

나는 수도승처럼 모자간의 결별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 오전에 홀로 남은 어미 새들을 모아 ‘어머니 비전 기도회’를 오픈한다. 외로운 어미 새들이 함께 모여 빈 둥지를 찬양의 불 속아 태운다. 눈물로 강수로 떠내려 보낸다. 이 불꽃은 연기가 되어 하늘님의 거대한 초청장이 되어 되돌아온다. 어미 새들은 이 초청으로 패유를 만끽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젓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이사야 49:15-17)

jkym47@gmail.com

푸/른/초/장

선종욱 목사
(푸른초장교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아버지여’라고만 부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 ‘하늘’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관점에서 살피고 또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져야 하는 생각 그리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리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때마다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들 곧 기도 공동체의 아버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기도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기도 정신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만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비밀을 독점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독점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이단자가 됩

지 않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음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가족공동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책임을 갖습니다. 가족이며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책임감을 인정합니다.

셋째로, 한 분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늘’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무한성, 초월성, 그리고 사랑을 완전하게 살피는 본임을 암시하십니다.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리를 ‘메타 포지션(Meta Position)’이라고 합니다. 메타포지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의 메타포지션, 공간의 메타포지션, 객관적 관조로 하나님은 우리 세계 안에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계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 ‘메타 포지션’입니다. 메타 포지션은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초월자가 존재합니다. 시편 139편이라는 복음성가 첫머리에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139편의 내용 전체가 나를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고성의 여인 라합처럼 ‘상천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영성,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움직이는 지를 바르게 아는 세계관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배우며 깨닫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믿는 일을 우선합니다. 또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6:9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대화의 상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매우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시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은 곧 아버지의 허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독점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책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가 아는 하나님만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신앙인들은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독점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책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가 아는 하나님만

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독점했다고 추앙받는 사람은 이단의 교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며 기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탐탁

다들 코로나로 인해 삶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 '크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세상이 도래했구나. 주여 더욱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에 천착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인의 언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보편의 상식으로 다루려다 보니, 문제는 여전히 삶은 한 없이 지치게 되는 것이다.

삶의 큰 문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흔히 돈 문제를 제일 큰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 더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별일 아니다.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

는데 어느 날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격한 반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먹고사는 돈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의 어려움 또한 결국은 상대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긍정과 부정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보면, 전교 1-2등 하다가 3-4등 하게 되어 죽겠다고 덤비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이다. 자신들 때문에 일등하는 애가 빛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고 말한다. 부모가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지만 공부 스트레스로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 아이이기에 나름 귀여울 따름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틀린 말도 아니다. 공부 잘하

담대한 기도

이민자들의 삶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깨뜨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 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을 잃고 낙심할 때이다. 기도하고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신다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문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생각해야 한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도하며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참 아름답고 귀하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일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승리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구멍가게가 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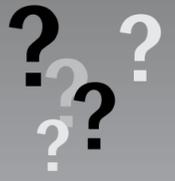
칼과 창으로 사람을 해하지 않는 이 시대는 말이 그 역할을 한다. 특별히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방의 영혼을 찢어놓는다. 긍정의 말로 염색되기보다 부정적인 염색이 훨씬 더 강해진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악하고 나쁜 말은, 좋은 말보다 감염이 몇 배나 더 강하다. 긍정은 한 번 두 번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한 번만 해도 세 배를 감염시킨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믿음을 잃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어려움에 쉽게 빠지게 한다.

신앙의 열심

네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이다.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한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게을러진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했다. 신앙생활은 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팬데믹은 개인과 사업에도 위기를 가져왔는데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팬데믹 때에 사업 실패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어떤 안목으로 보아야 할까요?
-토크스 변집사

A: 그래서 한자인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된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1991년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잘 익어가던 사과는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은 망연자실했고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에 대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치우던 어느 농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을 보았습니다. 농부의 머릿속을 스쳐 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을 잘 포장하여 별명을 붙였습니다. "태풍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은 사과" 사과가 판매되는 시기가 대학교 입시 시간과 맞물리면서 농부의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가 되어 불티나게 수험생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일반 사과보다 맛도 덜하고, 모양도 좋지 않았지만, 태풍을

팬데믹의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다.

견딘 사과였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몇 배나 비싼 값을 주고 사과를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되어 태풍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0세기 최대의 경제사건이었던 미국의 대공황(1929~1939)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고 노동자는 해고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에 긴 줄을 기다리며 빵을 배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공황은 새로운 것을 낳았습니다. 거대한 조형물들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Golden Gate Bridge)와 뉴욕의 조지 워싱턴 브리지(George Washington Bridge), 후버댐(Hoover Dam), 뉴욕의 라Guardia 공항(LaGuardia Airport), 등 미국의 랜드마크가 공황으로 인해 실적으로 당한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어 썩 노동력으로 거대한 건물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경제공황 때에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고 보통 때보다 40% 이상 싸게 건물들을 지은 것입니다. 역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와 새벽에 모이지 못할 때 카톡으로 3분 묵상을 몇 년간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3분의 미라클이란 책"이 출간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위기가 저에게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야곱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내다 형의 미움을 받아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인생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위기 때에 외로운 광야에서 밤에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사닥다리 체험", 즉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창 28: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어 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만사를 긍정하는 담대한 믿음

- 기도, 몸, 언어, 게으름 -

다. 재벌들도 한순간에 쫓겨나서 빈털터리가 되거나 당대 한국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도 지금 영어의 몸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반면, 지금도 하루에 일 불, 한 달에 삼십 불씩만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십삼억이 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나만 가난하고 힘들게 고생하냐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일까? 거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또 사람들은 늘 먹고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한다. 인간에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먹고사는 문제는 건디면 되는 것 아니냐며 별일 아니라고 한다. 이유인즉 사랑하는 자식이 이단에 빠져 죽고 사는 신앙 사상의 문제에 봉착해보니 해결방법이 없더라는 것이다. 그 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다. 부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것이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은 신학교를 갔는데, 동성애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분은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로 진학을 했

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외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얼굴 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처럼 스스로 얼굴에 이물질을 집어넣을 정도의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과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과연 몇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만족할 만한 얼굴을 가졌다고 자부할까? 대체로 착각하는 것이진짜로 잘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 밖에 없는 유일한 얼굴, 바로 이 얼굴이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겠는가?

만사를 긍정하는 믿음

몇 가지 문제를 예시했지만, 결국에는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은, 그 삶의 원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야 큰 가게 주실 것인데, 왜 자꾸만 구멍가게 망한 것만 두고 원망하고 있는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살아 낼 수 있는 세상이다.

체력은 영력

두 번째는 몸의 어려움이다. 몸이 약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면 믿음 생활이 희미해지는 것을 본다. 체력은 영력이다. 체력이 약해지면 영력도 줄어든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몸이 약하다고 해서 못할게 뭐가 있는가? 인도의 간디를 생각해 보라. 인도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금식 투쟁을 하고 단식 투쟁으로 인도의 간디는 인도의 아버지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그 약한 몸이 인도를 어떻게 구원해 낼 수 있었겠는가? 기독교와 맞지 않는 예화지만, 몸이 약하다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교회 나올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기도하며 더욱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

긍정의 언어

세 번째는 언어의 문제이다.

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식어지면 뒤로 물러난 것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상실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 신앙생활은 쉬는 게 없다. 휴가라는 게 없다. 놀러 가도 신앙생활, 일을 해도 신앙생활, 여행을 가도 신앙생활,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온전한 승리의 영광

이러한 몇 가지 예뿐이겠는가? 훨씬 더 많은 일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찾아온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가 겹친 종말의 시대이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며 아우성친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믿음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믿음을 구하고, 그 어떤 성공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갈 때 마침내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삶이란 무엇입니까?”

목회단상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요즘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고 계신 어떤 분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아 주의자들은 삶은 끊임 없이 투쟁하는 것이며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삶이란 가정과 직장과 커뮤니티 등에

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달려갈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삶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삶은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삶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아 가면 갈수록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을 즐기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면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싶고, 자주 생각하고 싶고, 자주 기도 하고 싶어 집니다.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기도하면 영이 즐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활동과 사역 이전에 먼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과 사역에 전력투구하기 이전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즐겨워하는 일에 전력투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즐겨워하지 못하면서 활동과 사역에 분주한 것은 마

치 삶 속에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활동과 사역에 분주하면 할수록 점점 고갈되어 가고 지쳐만 갈 것입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고, 자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면에서 멈출 수 없는 불같은 열정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불같이 솟구쳐 오르는 바로 그 열정으로 활동하고 사역하면 활동이 즐겁고 사역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삶은 바로 그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가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푸틴 성토장면 고르바초프 장례식

러시아 모스크바 ‘하우스 오브 유니온’ 필라홀에서 열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장례식은 수천명의 추모객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의 러시아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젊은 대학생부터 8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노소로 구성된 추모객들은 “30년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전체주의 소련의 굴레를 한순간에 없애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던 고르바초프 집권 당시보다 지금의 러시아는 훨씬 후퇴해 있다”고 성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AP·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거행된 장례식에는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수천 명의 추모객이 몰려와 고인의 시신이 놓인 관 앞에 장미와 꽃다발을 헌화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고인의 외동딸인 이리나와 두 손녀가 곁을 지켰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물 바깥에는 줄이 길게 늘어선 정도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고인은 지난달 30일 당뇨와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한 인한 투병 끝에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약 3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시신은 노보데비치 묘지로 운구돼 1999년 백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라이사 여사 옆에 안장됐다. 고르바초프의 마지막 길에는 작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동행했다. 그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묘지로 가는 운구행렬을 이끌었다. 무라토프는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었다. 1993년 고르바초프의 자금 지원으로 신문사 노바야 가제타를 설립했다. 노바야 가제타는 올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다가 러시아 당국의 처벌 위협 속에 폐간됐다. 무라토프는 올해 6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자신이 받은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다. 메달은 1억350만 달러(약 1천336억 원)에 낙찰됐다. 고인도 1990년 냉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2000년 5월 권좌에 오른 푸틴은 고르바초프에 의한 옛 소련의 붕괴를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불렀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國葬)으로 치러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정부가 경호와 의장대를 지원하는 등 국장급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영국 BBC는 러시아 정부가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려 하지 않자 “현 러시아 지도부가 고르바초프의 유산을 기리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러시아 지도자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은 장례식은 1971년 니키타 흐루쇼프가 마지막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장례식에 불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업무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그에 앞서 지난 1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빈소가 있는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을 개인적으로 찾아 헌화했다. 외국 지도자 중에선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유일하게 장례식에



참석했다.

NYT는 “조출하고 우울하게 거행된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러시아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고 평했다. AP통신도 이번 장례식은 2007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사망 당시 푸틴 대통령이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가 애도일을 선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을 조문한 한 모스크바 시민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고 러시아를 전 세계에 개방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조문하러 왔다고 말했다. 추모 인파 중에는 소련 시절을 기억 못 하는 젊은 러시아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역사학자 안드레이 주보프는 “이들의 동행은 현 정치 시스템에 대한 무언의 항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미, 대중 관세 유지 결정, 선거 앞두고 강경책 선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자동 만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의 대만 방문 이후 대중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법률적 검토를 계속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둔 데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소폭 개선되고 있어 대중 관세 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에서 국내 산업 대표자들이 관세 조치를 지속할 것을 요청했음을 확인했다”며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는 종료일 만료되지 않았고, 우리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 4년이 지났을 때 USTR은 관세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수혜자로부터 관세 지속에 대한 의견을 받고, 효과 등을 분석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세는 자동 종료된다. USTR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2018년 7월 6일과 8월 23일 발효된 대중국 조치 2건’에 대한 4년 검토를 시작했다. USTR은 2건의 조치에 대해 모두 358개 생산 기업과 76개 무역 협회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국내 산업계 대표자들은 무역 조치를 통해 여러 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대중 관세 조치로 신기술 투자나 국내 생산 확대, 추가 인력 고용이 가능해졌고, 중국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경쟁 해결에 도움이 됐다” 등의 의견을 보냈다. USTR은 언급했다. 앞서 미국에선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 제기돼 왔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중 관세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만 늘릴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백악관 분위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대중 관세 완화가 중국 위협에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중 관세 완화를 지지해 온 지나 러몬



도 미 상무장관도 지난달 중순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대중 관세 문제를 도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기류 변화를 인정했다. USTR은 이에 따라 대중 관세 조치 연장에 대한 효과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 유지를 원하는 기업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일단 조치를 유지하고, 관련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USTR 조치는 법적 절차여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중 감정이 팽배한 상황여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지 않았는데 헤택만 주려 한다’는 공화당 비판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약속이었던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상호 조치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들도 대중 관세 완화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선거 전 관세 완화 조치는 사실상 무산될 셈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하자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관세 품목을 549개로 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이 중 352개에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 문제에 대한 실수를 수정할 가능성은 당분간 거의 없어 보인다”며 “정치화된 ‘관세 쇼’는 미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정역 총 20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이 2일 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전체 형량이 20년으로 늘었다.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얀마 군정 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강제 노역을 포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암습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선거 참관인들은 선거에서 주요 부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광범위한 사기 혐의로 인해 행동에 나섰다 주장했다. 선거조작 관련 혐의로 수치 고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군정으로서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앞서 군부는 2023년 총선 전 NLD를 해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선거 조작과 부패 등 1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을, 지난 4월과 지난달에는 부패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추가됐다.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됐던 수치 고문은 지난 6월부터 교도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 공개도 제한됐다. 이날 선고 내용을 외부에 알린 소식통은 수치 고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전했다. 수치 여사의 지지자들은 수치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군부가 그녀의 정계 복귀를 막기 위해 그녀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군부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쿠데타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유행 진압과 민주화 인사 사형 집행 등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



데 플라잉 최고사령관은 최근 수치 고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플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달 19일 상명에서 “수치 고문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와 대화할 수 있다”며 “모든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가택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美 4살 아이 권총 들고 등교...개학 첫 긴장

신규 개학을 앞둔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해 학교에 초비상이 걸렸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들 전 텍사스주 휴스턴의 사우스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만 네 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했다. 학교는 이 어린이가 총을 소지하고 교내를 돌아다니는 신고를 받고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교내 경찰이 출동해 어린이에게서 권총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권총이 어린이의 부모의 것으로 확인돼 아버지(30)를 무기 방치와 아동 방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9일에는 애리조나주 코치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아이가 가방에 총 한 자루와 탄창을 넣고 등교했다. 경찰은 학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총기를 확보하고 아이의 부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은 장전돼 있지 않았으나 탄창에는 총알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아이는 집에 있던 총 두 자루를 모두 들고 등교했으며, 한 자루는 교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이가 사무실에 몰래 한 자루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총을 보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종차별’ 영 유튜버 채널 폐쇄... “정책 위반”

영국에서 인종차별적 내용의 콘텐츠를 다뤘던 극우 유튜버의 채널이 폐쇄됐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유튜버가 ‘영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유튜버’로 불리는 제임스 오언스(37)에 대해 ‘혐오 발언 관련 정책 위반’으로 채널을 폐쇄하고, 10만여명에 달하는 영상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오언스는 ‘아야톨라’(ayatollah)라는 가명으로 유튜버 채널 ‘톨라비전’을 운영했다. 2019년 12월 채널을 개설한 이후 40만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며 “혐오 발언 관련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톨라비전의 채널을 신속하게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3월 이 정책을 위반한 영상 9만5000개 이상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오언스는 유튜버의 자동 감시 시스템을 피하려고 음어(암호어)와 외국어법을 사용했다. 가명과 가짜 프로필 사진은 물론 목소리와 역양을 바꿔 신원을 숨겨왔다. 그러나 영국 내 극우주의자들을 폭로하는 독립 단체 ‘레드 플레이어’에 의해 오언스는 델미가 잡혔다. 레드 플레이어 측은 “오언스는 영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유튜버다. 그는 소수 민족, 동성애자, 유대인, 좌파에 대한 독설과 적개심, 격렬한 분노는 비슷한 이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이었다”고 밝혔다. 오언스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나는 ‘인종차별’이란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며 “그것은 백인을 비방하는 단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자신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인종차별은) 백인들이 권력과 조국을 빼앗기는 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대규모 심리적 학대 무기”라고 주장했다.



V. 신론

A.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인식론)

하나님의 존재는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Presupposition)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요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신적 감각” (神的感覺)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sensus divinitatis)을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식” 혹은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곧 칼빈이 말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신적 감각이다. 바울은 롬 1:19-20에서 우리 속에 있는 신적 감각에 대해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할지니라.”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신적 감각이 부패되고 왜곡되어졌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다. 롬 1:21-25,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신적 감각 (하나님의 지식)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진리를 왜곡시켰다. 죄가 우리의 이성적인 기능을 왜곡시켜, 합리적인 진리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한다. 고,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게 한다 (롬 1:21-25).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또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사용하게 만들었다. (롬 1:25-26)

그러나 성경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변화되어, 성경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된다.

복음을 접할 때에 성경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신적 감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2.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6)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3. 하나님께서 피조물 (일반 계시: 자연, 인간의 양심, 그리고 역사)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롬 1:20,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핑계를 할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의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행 14:17).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은 자연의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 19:1-2). 하늘의 해와 달, 별, 그리고 땅의 나무, 산, 등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조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많이 증거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이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증거 한다.

2)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신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에 일반 계시를 읽는 눈이 왜곡되었고 어두워졌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는 피조물을 섬긴다고 한다. “썩어지 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3).

그러므로 일반 계시를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

실하십시오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incommunicable attributes)과 공유적 속성(communicable attributes)으로 분류한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공유적인 속성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공유하는 속성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과 공유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하기를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지혜, 인자, 진실은 하나님의 지혜, 인자, 진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유적 속성을 설명하면서 그릇된 공유적 속성을 “좀 더 많이 공유된”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C.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는데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교리에서 비롯되었다.

소요리 문답 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니,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십니다.”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삼위일체의 교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1) 하나님의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2)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는 각자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이다. 3.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는 한 하나님 (one God) 이시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위격(ὑπόστασις 휘포스타시스)에서 3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삼위일체(trinitas)는 라틴교부 터툴리안 (AD 200년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한다. 삼위일체는 “셋의 연합 (tri-unity)” 혹은 “하나 안의 셋 (three in one)”이라는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1) 우주적 논증 (cosmological argument):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존재하게 되는 원인 (cause)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도 원인이 있다. 이 놀라운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 이시다.

2) 목적론적 논증 (teleological argument): 우주의 조화와 질서에 중점을 둔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우주에는 만드신이의 목적이 있다 (intelligent purpose). 이 분이 곧 하나님 이시다.

3) 존재론적 논증 (ontological argument): 사람들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존재가 계신다는 개념을 가진다.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 이러한 절대자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하시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 곧 성경의 하나님 이시다.

4) 도덕론적 논증 (moral argument): 모든 인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이 있고, 공의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도덕적인 의식의 근원인

B.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s)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다. 속성과 하나님의 본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성경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다.

소요리 문답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시니,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 하십니다.”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진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Diego, and New York.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6)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3) 방법3: 양심으로 죄를 느껴라

단순히 죄의식을 가졌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동요를 보고 당신의 양심은 괴로워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점점 구체적으로 죄를 느껴라

가) 첫째, 정직하고 거룩한 율법의 관점에서 당신 속에 나타나는 죄를 양심으로 느껴라.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의 양심에 가져와 타락한 당신의 성품을 율법 아래에서 점검하라. 그 율법을 통해 자극받기를 기도하라. 율법이 갖는 거룩함,

는 데 있다. 그것은 죄를 반사시켜 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의 죄를 대면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강박하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된다.

신앙을 공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배교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신들이 해방된 사람처럼 자부하고 율법의 인내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판단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통해 조금씩 죄의 원리가 그들 속에 파고들어 그들의 실제적인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사로잡게 되자 그 의지와 감정은 불경한 모든 죄에 노출되게 되었다.

정욕과 타락에 대해서 주님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던 것은 아닌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 내가 어떻게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 속에 정욕을 품기 위해서 사랑, 자비, 은혜, 선하심, 평화, 기쁨, 위로 등을 모두 저버렸고 그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내가 오히려 그분의 열굴 앞에서 그분을 노하게 만들었던 말인가? 나의 영혼이 씻김을 받았던 이유가 단지 새로운 죄를 짓기 위함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동들을 나는 계속할 것인가? 나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주는 성령을 매일 근심시킬 것인가? 매일 당신의 양심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키게 하라. 즉, 죄로 악화되기

두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 그런 섭리를 통해 당신의 양심에 죄의식의 짐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당신 속에 거하는 타락한 죄들로 인해 그 상처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면지를 뒤집어 쓴 채 죄를 고하며 철저히 괴로워하라.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양심이 죄의식을 희석시킨다면 당신의 영혼은 죄를 죽이려고 결코 힘쓰지 않을 것이다.

4) 방법4: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라

일단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당신의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해야 한다.

경건, 불같은 엄격함, 절대성, 그리고 내면성을 생각하고 당신이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느껴라. 율법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양심으로 크게 느껴라. 그리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범죄가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양심으로 깨달아라. 율법의 정죄 능력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 정욕이 아직 죽지 않는 한, 당신의 양심을 정죄하는 죄의 능력에서 당신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은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율법의 정죄의 능력에서 자유롭다고 항변하고, 죄의 정욕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겉으로는 그런 행색을 낼 지라도, 그는 결코 그런 영적인 증거들을 가질 수 없다. 율법의 목적은 당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 당신 영혼을 일깨워 겸손하게 만든

의 이름으로 말하는 율법의 소리에 당신의 양심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당신의 귀가 열려 있다면 율법의 소리에 당신은 떨림으로 땅에 엎드려지고, 당신 속은 놀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 둘째, 당신은 당신의 정욕을 복음의 빛 속에서 조명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에서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찌른 주님을 바라보고 비통해 하라!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큰 사랑과 자비, 보혈, 은혜를 경멸하고 짓밟았는가? 보답이 이런 것이었는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보상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씻음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게 된 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내가 더럽혔단 말인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뻔뻔스럽게 머리를 들 수 있는가? 그분과의 교제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 나의 정욕으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설 자리가 거의 사라졌

전에 죄에 맞서 양심을 세우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2) 구체적인 은혜와 죄성을 숙고하라

가) 첫째, 특별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참오심을 고찰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고 당신을 이 세상의 수치거리로 영원한 분노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지를 숙고해 보라.

나) 둘째, 죄의 속임수로 인해 강박해진 당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고 풍부한 은혜로 자주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그분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분과도 역사하셨다! 그동안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쇠퇴해갔고, 당신은 의무, 규율, 기도, 그리고 묵상과 같은 일에 흥미를 잃었다는 사실을 당신도 인정하지 않는가?

다) 셋째, 하나님이 은혜의 섭리 가운데 당신에게 베푸는 구원, 고통, 자비, 즐거움 등은 모

마음 속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이 추구하는 대상을 닦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죄와 대항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결코 당신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점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경계심을 갖고 대적자와 싸우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수단과 기회들을 강구할 것이다. 강력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열망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항상 갈망하는 자세를 견지하라. 바라고 울부짖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강력한 열망의 본뜻이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동굴에서 나올 수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며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이들은 어떤 이의 말 때문에, 또는 무례한 태도에 상처받아 속을 끓이다가 자기만의 세계인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무르익을수록 누구나 성숙한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모든 성인이 성숙한 관계 형성 안에 이르는 것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삶을 살아오며 경험한 다양한 환경과 상황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님의 편애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 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며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또 어떤 이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분노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수치감, 불안감, 외로움, 질투, 경쟁심, 두려움, 슬픔, 분노 등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동굴로 향하게 한다.

사람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한다. 어릴 때일수록 부모 혹은 양육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를 거치며 성인으로 발달한다. 인간 발달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처음 시도한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 영아기 때 양육자의 신뢰성 있는 보살핌을 받은 아기는 유아로 성장하면서 자율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영아기 때의 양육자와의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 형성은 건강한 성인으로서는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중앙일보 탐사팀에서 강력범죄자 159명을 대상으로 성장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부모의 문제로 인한 가정사로 성장기 때 고통을 받은 경우가 66.7%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이 경험한 고통은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을 낳았고 이것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한 것을 볼 때 강력 범죄와 성장기의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 안에서 자주 자기만의 세계인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이들 또한 성장기 때 경험한 고통스러운 일이 그들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감정은 성인이 된 현재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잠자고 있던 사자처럼 포효하며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세계인 동굴에 갇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갈등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울감이 항상 몰려온다면 이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자. 고통스러운 상황은 우리를 자주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성장하면서 갖게 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혼돈스럽게 만들고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03) 821-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청소년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3)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phor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세 배 예: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칸사 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주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
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기...
의 존재를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심리를 잘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백악관 직원들의 이름을 알고 오고 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 일하는...
청소부들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신의 존재감이나 유명세를 알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려주면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교우들이 저의 수고를 알려줄 때 마음이 기쁘고 저의 수고를 알려주지 아니할 때는 마음이 섭섭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은 나의 수고나 진심이나 중심을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기도 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려준다는 것이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려준다는 것이 나의 진실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당하는 고충 가운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세상의 알아줌에 편견과 곡해와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지도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대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알아줌의 실수나 시행착오로 인한 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음해하고 악평하고 곡해하고 대적하는 그 기질이 매우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인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르게 중심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같은 부요하고 큰 교회도 기억하시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작고 가난하고 한탄 중에 있는 교회도 기억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작은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알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

니다. 그리고 내가 크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다고 기가 죽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하거나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지나치게 바라면 안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교우들의 그 수고를 목사인 제가 몰라 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그 수고를 알려주지 못할 때 매우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나 교회가 그 수고를 몰라주어도 패념이 없고 담담히 그 수고를 잘 감당하시는 훌륭한 교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나의 수고를 사람들, 교인들 심지어 목사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이라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우들의 성숙한 그 믿음의 보배성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의 그 충성과 그 섬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이웃 봉사나 흑역할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관계의 서운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 같이 빛나리/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리” cyd777@hotmail.com



CMF 창립 제23주년 음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CMF 선교원 창립 제23주년 축하 음악회 열려

천국은 현재 진행형... 섬기는 모습 아름다워야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8월27일(토) 정오 CMF 회관에서 창립 제23주년 축하 음악회를 열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와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박종진 선교사(이집트)가 말씀을 전했다. “천국은 현재 진행형이다(마 10:45)”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박 선교사는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CMF 선교회는 이러한 섬김의 모범적인

단체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다스리시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유지 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진경 사모가 ‘주여 지난밤 꿈에’, ‘성령이 오셨네’, ‘주기도문’ 등의 피아노 연주를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김진경 사모는 행복한교회의 담임 목사인 남편 이재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두 딸 예음, 예진이 있다.

(기사제공: CMF)

인플레이션 사태...

<1면에서 계속>

이것은 우리가 2021년 말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재정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서 동안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올해 남은 기간과 그 이후의 사역을 계획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기지를 재 융자하라. 장기 부채를 안고 있다면 지금이 보우하고 있는 현금으로 일부를 갚거나 미래를 위해 재융자를 하기에 완벽한 시기일 수 있다. -25% 임금 인상에 대하여 계획하라.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지만 직원 인건비가 하루아침에 25%나 오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려해볼 것이 필요하다. -장기 가격 책정을 고정하라.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 가격을 확보해야 하는 모든 계약을 재협상하기에 좋은 시기다.

획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당신의 기부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도록 하거나, 연말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종종 교회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45일 동안 10~15% 정도 증가된 기부금을 발견하게 된다. 비정기적인 기부자를 전환하는 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기부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조직의 재정 건전성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새롭고 참신한 투자 전략 탐색

지난 2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재정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변했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간 예비비를 늘리길 원했다. 많은 교회들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 문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최소 7%의 이자를 반환하지 않으면 천천히 평가절하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은행 계좌의 경우가 아니다. 그 현금은 가치를 잃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부터 일 년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비용이 커져감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저축한 돈의 가치를 크게 잃을 수 있다.

지금 당면하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의 지출 측면을 주의 깊게 볼 때다. 몇 년 전,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시기였을 때, 우리 교회는 아동부에서 만들기 활동에 대한 예산을 줄였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정말 적은 금액이었고, 솔직히 말해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한 중요한 경험을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슬데없는 사각 결정이었다. 이처럼 주일학교에서 만들기 용품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회 전체 예산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LLC(유한책임회사)의 단독 소유자가 된 여러 교회에서 이 현금 보유액을 사용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는 커피숍이나 임대시설과 같은 교회 사업을 여는 것이 포함된다.

3. 지도력 개발 지출 증가

당신의 팀은 불확실성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다. 월급 인상에 대해 말하는 것

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살펴봐야 할 사항일 수 있다. 이제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원을 두 배로 늘려 리더십 개발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교회의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이 당신에게 이자를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올해 팀 전체의 리더십 능력을 높인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것이다.

올해는 팀에 영감을 주고 준비시킬 수 있는 회의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여러 부서의 코치를 고용하는 해가 될 수 있다. 종종 외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팀에 좋은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 관리 지원이나 원격 인력 계약 등의 추가 지원을 더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다가오는 해에는 리더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산 삭감이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라

인플레이션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야기되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의 지출 측면을 주의 깊게 볼 때다. 몇 년 전,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시기였을 때, 우리 교회는 아동부에서 만들기 활동에 대한 예산을 줄였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정말 적은 금액이었고, 솔직히 말해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한 중요한 경험을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슬데없는 사각 결정이었다. 이처럼 주일학교에서 만들기 용품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회 전체 예산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LLC(유한책임회사)의 단독 소유자가 된 여러 교회에서 이 현금 보유액을 사용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는 커피숍이나 임대시설과 같은 교회 사업을 여는 것이 포함된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고위 리더십이 너무 오래 끌고 왔으나, 미래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제거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해보니,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



는 것을 알려준 것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눈치챌만한, 그리고 동시에 전체적인 예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가?” 나는 10% 안팎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삭감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인 삭감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이런 종류의 삭감은 당신의 리더십 팀을 고뇌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정말로 이 영역에 필요한지 묻게 만들겠지만, 일단 그런 필요 없는 부분들이 제거되고 나면, 반대편에 있는 조직들에게 훌륭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술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 이는 우리가 실컷 위에서 나는 이야기들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기술 장비의 구매를 위한 비용을 두 배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매를 가속화하는 것은 이 시점에 현명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플레이션과 소비력 상실의 효과를 이해할 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으로부터 1년 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이것들을 사는 것이 더 비쌀 것이다. 당신의 교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라. 이것은 당신의 온라인 경험에 더 많은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운 카메라 기어 구매와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의 새로운 캠퍼스를 더 빨리 여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많은 기술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완벽한 시기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계속 서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한 세대 중 가장 힘든 리더십 시즌을 보냈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흔적은 지난 2년 동안 COVID-19를 처리하면서 배운 교훈을 테스트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하고 늘 곁에 있다.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 울산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1(목)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제8회 Spirituality Conference
2(금)~3(토)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4(주)~5(월) 인천 소망교회 (황규래 목사)
6(화)~7(수) 서울국제총회신학원(이사장 김영준목사)
8(목) 서울 주평안교회 (김명길 목사)
13(화) 오후 28(수) 오후 14(수) 오후
15(목) 저녁
18(주)저녁 19(월)~20(화)
21(수) 오전
21(수) 오후
21(수) 저녁 24(토) 오전 25(주)~27(화)
28(수) 오후 29(목) 오전
29(목) 저녁

동부교계 게시판

이민생활체험수기 공모전

Good TV NY(대표 한은경)이 창사 4주년을 맞아 이민생활체험수기를 공모한다. 미국내 거주하는 한인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연령제한 없다. 마감일은 2022년 10월 31일까지이며 분량은 레터용지 10장 내외(10포인트). 원고를 제출할 때 응모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석 교회를 명시하면 된다. 공모된 원고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원고접수는 goodtvny2022@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문의: goodtvny2022@gmail.com

퀸즈장로교회 건축 바자회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에서 건축을 위한 소바자회와 대바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각종 물품, 식재료, 과일, 반찬, 다양한 먹거리 등을 판매한다.
1) 소바자회: 9/10(토) | 9/17(토) | 9/24(토)
2) 대바자회: 10/1(토) 오전 7:00~오후 5:00
3) 장소: 교회주차장, 지하신학교실
4) 주문: 홈페이지, 카톡채널, 교구장, 선교회 회장
5) 온라인 주문: www.kapcq.org/order
▲문의: 퀸즈장로교회 718-886-4040, https://www.kapcq.org

뉴프론티어교회 주일학교 사역자청빙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프론티어교회(류인현 목사)에서 유년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를 담당해 주일 풀타임/하프타임/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 한다.
자격조건: 1) 정규신학대학교 M.A, M.A.R, M.Div 재학 이상 학력과 주일학교 사역 경험자 2) 영어, 한국어 대화 가능하며 영어 설교 가능하신 분, 지원서류: Resume, Salvation Testimony, Statement of Faith & Philosophy of Ministry
▲문의 및 접수처: nfc.session@gmail.com

유영교회 청년부, 유년부 사역자 청빙

뉴저지 Palisades Park에 위치한 유영교회(C&MA교단 소속)에서 청년부 및 찬양인도 / 유년부로 섬길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 한다. 자격조건: 1) 정규신학대학교 M.Div 재학 이상 2)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 가능하신 분 사역부서: 청년부/찬양인도(1명), 유년부(1명) 지원서류: 자기소개서, 이력서
▲문의 및 접수처: jjang222@hotmail.com

디딤돌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디딤돌아카데미에서는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교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전도사 과정과 평신도 사역자 과정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장소: 필그림선교회 기간: 평신도 교육 전도사 과정 (9월 13일-11월 29일, 매주 화요일) 평신도 사역자 과정 (9월 8일-12월 8일, 매주 목요일)
▲문의: 서병용 사무처장 201-739-7733 / billysuh@gmail.com
전윤호 총무 201-618-2262 / jeonyunho@gmail.com

낮은올타리,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6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 조희창 목사)에서 ZOOM으로 만나는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6>를 연다. Kidz Bible Adventure는 슈퍼북 커리큘럼으로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재미있게 또한 은혜롭게 성경을 깊이있게 배우는 과정이다. 아이스브레이크게임, 찬양과 율동, 슈퍼북 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말씀시간, 선생님과 함께 하는 Small Group 등으로 진행된다.
대상: 어느교회 누구나 참여 가능, 1st - 6th Grade 참여방법: 각 가정에서 Zoom 화상 미팅을 통해 참여 등록비: \$60
▲문의: 낮은올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http://www.woolarius.org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가을야유회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 유상열 목사)에서 가을야유회를 가진다.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알리폰드공원(Alley Pond Park)
▲문의: 유상열 목사 917-862-0523



제7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Zoom 미팅 중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제7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성료

“존재론적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졌기에 선교하는 것”

PGM선교회(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지난 8월8일(월)부터 8월26일(금)까지 제7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올해로 제 7회를 맞는 PGM 선교사집중훈련은 멕시코, 미국, 에스와티니, 키르기스스탄과 미주 6개주 뉴저지, 메릴랜드, 일리노이, 조지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에서 15명의 훈련생들이 참가 했다. 이중 7Unit 11명은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에서 진행되는 제5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에서 PGM 선교사로 파송될 예정이다.

본 선교사집중훈련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3주간동안 진행됐다. 개회예배에서 호성기 목사(국제대표)는 ‘선교사에게 선교합시다’ (벤전 2:9-10)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고 구원받아 존재론적으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선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집중훈련에서 27명의 PGM 전문강사진들의 이론과 선교사례가 생동감 있게 훈련생들에게 전달됐다. 1차 훈련에서는 선교의 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중심, 땅끝중심선교), 12개의 선교특강 및 선교사례 (선교사의 경건훈련, 난민선교, 사업장선교, 인터넷선교 방법론, 스페니쉬사역, 선교사의 영성, 웨일즈선교 1 & 2, 지역교회 차세대선교, 의료전문선교, 온라인시대 미디어 선교전략, 시티교회)가 진행되었고, 2차 훈련에는 선교사의 정체성, 마지막 시대와 선교, 부르심, 전문인선교사례, 인도네시아선교, 도심선교, 전도훈련으로 진행됐다.

3주간동안 7시-10시까지 (미동부시간 기준) Zoom으로 진행된 본 훈련은 매 강의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도전을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추후 실시되는 PGM 선교훈련에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평가됐으며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 전문인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삶의 현장인 Here & Now에서 유학생, 다민족, 자녀, 이웃, 직장, 교회내에서 복음의 전문인으로 살아 갈 것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친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통해 102명의 PGM 선교사를 파송하고 5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기사제공 PGM)

뉴욕호신장로교회, 3대 담임목사로 김광선 목사 결정

10월 22일부터 ARPC 북동노회 인준 후 부임 예정

뉴욕호신장로교회는 9월 4일 주일에 3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김광선 목



김광선 목사

사를 3대 담임으로 결정했다. 공동의회 결과는 참가 202명 중에 찬성 171명(84.7%), 반대 30명(14.9%), 기권 1명이었다. 뉴욕호신장로교회는 청빙절차를 거쳐 8월 14일에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한 결과 58.9%의 지지로 김광선 목사를 최종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김광선 목사는 10월 22일에 열리는 호신교회가 소속한 ARPC 북동노회 정기노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부임하게 된다. 김광선 목사는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2015년 5월부터 LA에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행정, 예배,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해 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개최

레크레이션, 제기차기, 보물찾기 등 친교 시간 가져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이 주최하고 뉴욕대한체육회(회장 곽우천)가 주관하는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노동절인 9월 5일 (월) 오전 9시에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엘리펀드공원에서 개최됐다.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는 창세기 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동포들을 품에 안고 나아가는 교협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다.

김희복 회장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전도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는 증경회장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이번 체육대회는 내년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전 미주 체전 선수 선발전을 겸하여 진행됐다. 선발전을 치르는 경기 종목은 배구, 족구, 육상 등이다. 주최측은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으며, 뉴욕대한체육회 사무차장 박주열 안수집사의 인도로 보물찾기, 제기차기, 커피 발 묶고 달리기 등 각종 레크레이션등을 통해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체육대회 중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랑의 음악회 후 단체사진 촬영 중

새생명선교회, 암환자를 위한 14회 사랑의 음악회

유방암 예방, 진단 특강과 백혈병 환자에게 성금 전달

‘새생명선교회’가 암환자를 위한 제14회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다. 9월 2일(목)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 사랑의음악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열렸다. 새생명선교회는 심의례 전도사가 2005년 유방암 수술 후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환자들의 마음의 치유와 선교를 위해 2006년 시작한 선교 단체이다.

사랑의 음악회는 최은희 권사(뉴욕한인학부모회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희복 목사(뉴욕교협회장)가 인사 및 개회기도를 했다. 이어 전문의 성갑제 박사가 “유방암 예방,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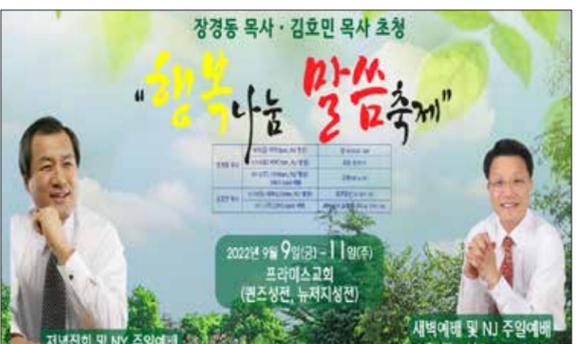
고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백혈병 환자에게 성금이 전달됐다. 2부 음악회는 정지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정인국 장로와 정신희 권사 부부가 비올라와 첼로로 연주를 했다. 또 정인국 장로의 트레이드마크인 톱연주도 진행됐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 소프라노 이애실과 테너 이진진 장로는 각각 솔로 및 듀엣으로 찬양을 했다. 또 뉴욕팬플릿선교찬양단(단장 이일성 권사)이 찬조출연을 했다.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프라미스교회, ‘행복나눔 말씀축제’

강사,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김호민 목사(대전권능교회)를 초청하여 ‘행복나눔 말씀축제’ 집회를 갖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친 교계와 교인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 준비한 본 집회는 9월 10일(토) 저녁 7시, 9월 11

일 주일 1,2부 예배를 통해 가질 예정이다. 장경동 목사는 뉴욕프라미스 성전에서 토요집회와 주일에 배 설교를 하게 되고, 김호민 목사는 뉴저지 프라미스 성전에서 새벽예배 및 주일에 배 설교를 할 예정이다.
(김재상 기자)



‘행복나눔 말씀축제’ 포스터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진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NYU School of Medicine 문자: 929-410-4475
 180 Madison Avenue # 3-23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New York, NY 10016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문 한문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40 사모블레싱나이트 성황리에 열려

사모들 축복하는 자리... "행복한 사모님 되세요"



3040 사모블레싱나이트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렌지카운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오렌지카운티 여성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 오렌지카운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가 공동주관한

'3040 사모블레싱나이트'가 4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심상은 목사는 "목회자와 결혼하면서 자동적으로 목회자의 아내들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가지

게 된다. 하지만 사모라는 자리는 마음껏 울 수도 없고, 마음껏 웃을 수도 없고, 마음껏 행복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와 특별하게 친해져도 안되는 이상한 공적 인 위치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사모들은 혼자 남은 고독한 존재가 되다보니 감정의 출구가 없게 된다"라며 "오늘 사모님들을 축복해 드리 기 위해 특별한 사랑의 마음과 정성의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 사모블레싱나이트를 통해 사모님들께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행복해지는 시

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박재만 목사(OC교협 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경배와 찬양은 김생수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기도했으며 OC장로협의회 회원들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한기홍 목사가 '행복한 사모님 되세요(마 11: 28-3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이은수 목사가 특별찬양을 했다. 방송인 윤우경 대표(사람과 사회) 사회로 시작된 2부 위로의 시간은 지미옥 씨(지미옥 한국무용 & 음악학교)가 특별 무용 시간을 가졌으며 최경철 목사(오렌지호스피스 본부장)가 '호스피스 사역이란?' 주제로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찬양사역자 박갑수 목사와 조영석 목사가 특송을 불렀으며 친교와 게임을 하는 시간을 그쳤다. 심상은 목사 사회로 진행된 3부 사명의 재발견 시간은 안은자 사모(갈보리복원교회)가 간증했으며 재 사명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정기 조찬기도회 가져

"10월 24일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3일(토)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9월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이소연 이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가 '위대한 인생의 삶'(마 20:26-28)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심상은 목사는 "섬기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전도회연합회는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이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편안한 삶을 꾸기보다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전도회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신용 회장은 3050 21인 차세대 목회자 초청 OC영적대각성 다니엘새벽기도회와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를 언급하며 "8월은 OC교협을 중심으로 OC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 함께 기도하며 OC 지역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사모 블레싱(9/4.토)"과 10월 24일(월)에 있을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도 영적 흐름을 같이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사모를 격려하고,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께 힘을 실어주는 OC교계의 선한 움직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오는 10월 24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준비 중이다. 지난 1회(2019년) 때는 15명의 선교사 자녀에게, 2회(2021) 때는 52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50명 이상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상품으로 출원원 시 20,000불의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한국 왕복항공권, 골프용품 및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고 교회와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골프대회 참가비는 150불이며 그린 피와 점심, 저녁 만찬이 포함된 금액이다. 참가신청은 온라인이나 신용 회장(562-399-2022), 윤우경 이사장(213-500-5449)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LA 제 5기 전문강사 스쿨 개강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LA 5기 전문강사스쿨 개강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되길"

생터사역원(대표 이애실) LA 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 제 5기 전문강사스쿨이 시작됐다. 지난 29일 오후 7시, 45명의 학생들과 13명의 스터(스프터)인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가운데 줌으로 드러진 개강예배는 장재영 목사의 찬양인도, 김흥철 목사 기도, 김덕수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김덕수 목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엡 4:13)이란 제목으로 "2017년부터 LA에서 전강스쿨을 섬겨왔고.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대로 멈출 것인가? 마치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넓은 지경에서 학생들이 모였다. 올해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한국에서 모였고 미국도 여러 주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기쁘고 감사하다. 코로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넓게 퍼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지한다는 뜻을 넘어서 관계 속에 친밀함을 통해 알아간다는 의미이다. 제 5기 전문강사 스쿨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먼저 내 안에서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야 하고 내 맘에서 넘쳐 흘러야 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사역의 틀로서의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LA지부 삼일교문 정재현 장로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끝까지 승리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박춘자 권사는 "동부와 서부 두 트랙으로 스쿨이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학생들을 환영한다. 멈추지 말고 잘 완주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장재영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이어 LA 제 5기 전문강사스쿨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학사 일정과 커리큘럼, 과제물 제출에 관한 사항들을 전달 한 뒤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LA 제 5기 전문강사스쿨은 8월28일부터 시작되어 매주 월요일 7시, 동부와 서부 두 트랙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한 자들은 2월 4일 졸업식을 갖게 된다. 생터사역원 LA 지부는 그동안 137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쉽 없이 말씀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생터사역원에 대한 문의는 213-500-2948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장신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상명 총장이 환영사와 교직원 소개를 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전성진 목사 찬양 간증 금요집회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는 전성진 목사(가주 늘래 합창단 지휘자) 찬양간증 집회를 9일(금) 오후 8시에 개최한다. ▲ 문의: (847)846-9988

故 조용기 원로목사 1주기 추모예배

"故 조용기 원로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9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갖게된다. 예배는 이영규 목사(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증경총회장)가 메시지를, 김판호 목사(북미총회 직전총회장, 베데스다대학교 총장)와 배중구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추모사를 전하게 된다. ▲ 문의: (323)913-4499

드림교회 창립 44주년 부흥성회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는 창립 44주년 부흥성회를 15일(목)부터 1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또한 18일(주일)은 창립 44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로 함께 드려진다. ▲ 문의: (626)793-0880

타코마제일침례교회 가을 부흥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는 가을 부흥회를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신동일 목사(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영어회중 담임) ▲ 문의: (253)535-5803

오레곤벤쿠버 교회연합회 2022 선교대회

오레곤벤쿠버 교회연합회 2022 선교대회가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일정과 강사는 9일(금) 오후 7시30분(장소: 에덴교회, 강사: 이재환 선교사), 10일(토) 오전 10시(장소: 에덴교회, 강사: 윤전석 선교사), 오후 7시(장소: 에덴교회, 강사: Emilian Mihet 선교사), 11일(주일) 오후 4시 베델교회(강사: 이재환 선교사) ▲ 문의: (503)644-0191

ANCSA 온누리교회 서밋

샌안토니오온누리교회(담임 박한덕 목사)는 ANCSA 온누리교회 서밋을 10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개최한다. ▲ 문의: (210)653-2270

KPCA 서중노회 찬양제

KPCA 서중노회(노회장 백정우 목사) 찬양제가 11일(주일) 오후 5시 선한정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626)913-6611

2022 아이자야 씹스티원 USA

2022 아이자야 씹스티원 USA 미서부지역 찬양집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일정은 10일(토) 오후 5시30분, 11일(주일) 2부예배, 달라스빛내리교회(정찬수 목사), 16일(금) 오후 7시30분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17일(토) 오후 5시 인랜드교회(안환 목사)이다. ▲ 문의: if6tyone@gmail.com

세리토스장로교회 가을말씀집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가을말씀집회를 16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가을말씀집회 강사는 장성철 목사(보스턴장로교회)이며 일정은 16일(금) 오후 7시 30분, 17일(토) 새벽 6시, 오후 7시, 18일(주일) 1-3부 예배이다. ▲ 문의: (562)677-7777, 860-5451

한미특수교육센터 세미나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장로사)는 North LA 한인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해결사가 달려갑니다'라는 주제로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에서 갖는다. 강사는 아동심리치료학 박사이자 국제행동분석가 윤여광 박사 ▲ 문의: (562)926-2040

미주장신대학교 가을학기 개강 감사 예배

"배움의 여정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 이상명 박사)는 8월26일(금)과 8월29일(월) 각각 온라인 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개강 감사 예배 시간을 가졌다. 이상명 총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지식과 영성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은 하나님이 선별하신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지금의 배움의 여정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지니신 그 결단과 결기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강 감사 예배에서 정중환 목사(남가주 믿음의 교회 담임, 미주장신대 이사장)는 누가복음 5장 1절~11절과 함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지금은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학업과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열매가 이뤄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뤄지게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하며 격려와 다짐을 촉구했다. 미주장신대학교 2022년 가을학기를 통해 5개의 학부 과정(신학, 사회복지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과 7개의 석사 과정(교역학, 교역학 전문원목과정, 교역학 전문목회과정, 상담심리학, 선교학, 결혼가족치료학, 전문목회석사)과 2개의 박사 과정(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을 개설하고 있다. 전 세계 40여 국가에서 300여명의 재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활발히 학업과 사역에 임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장학금을 받은 이들이 회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LA연합감리교회, 4만 7천달러 장학금 전달식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사랑의 사업이 되어야"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는 총 47,000달러에 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지난 8월28일(주일)에 가졌다. 이날 주일예배 시간에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본 교회 장학위원회(위원장 고계홍 장로)를 통해 선발된 7명의 장학생과 몽골, 멕시코, 카자흐스탄 선교지 장학금, 차세대육성 장학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장학금 등 총 47,000달러를 전달했다. 1999년 설립된 장학위원회는 그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서 비롯되는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260여명의 장학생들에게 411,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고계홍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교회 장학사업이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와 이민 사회, 그리고 미 주류 사회까지 퍼져 나가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사랑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 우영우 성장시킨 '한바다' 되려면...

지난 28일 오전 경기 성남 시 분당구 매화로 분당영광교회(박명구 목사) 영광부 소속 청소년들이 열심히 성경공부(Bible Study)를 하고 있었다. 이 교회 영광부는 발달장애인 전문 교회학교이다. 먼저 찬양을 불렀다. "예수님 찬양/예수님 찬양/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발달장애인들의 표정에 기쁨이 가득했다. 모두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다. 찬양 중 "할렐루야"가 나오니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 교회 장로 김종인(66) 나사렛대 명예교수가 "이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발달장애인들은 일제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어눌한 말투였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잠시 숨을 고른 김 교수는 "오늘 성경공부 주제인 소명(Vocation)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발달장애인들은 책상 앞에 IMP 교

(Spiritual Intelligence-SI)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영성지능'을 거듭 강조했다. 영성지능을 개발하면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지적장애인이나 감성지능(EQ)이 낮고 굴곡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도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신하게 된다.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IQ와 EQ, 그리고 사회성지수(SQ), 건강지수(HQ)가 뒤떨어지더라도 영성지능을 개발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새롭게 태어나고 다름의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교회 외에 서울시민교회 희망부, 샘물교회 사랑의교회 영락교회 사랑



예배 내용과 순서, 분위기 등의 개혁이 필요

재를 펼쳤다. IMP는 'Individualized Ministry Plan'(개별화 사역 계획)의 첫 글자로, 발달장애인을 자기 주도 성경공부 교재다. 발달장애인들은 이번 주 선언 말씀인 "I found a vocation to preach the Gospel.(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를 여러 차례 공책에 쓰고 반복해 읽었다. IMP 교재는 김 교수가 편찬했다. 발달장애인에게 쉽게, 반복적으로 성경말씀을 1인칭으로 만들어 영어와 한글로 암송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IMP의 철학과 비전은 발달장애인 개별화 및 다름의 능력 개발이다. 예수님의 사역인 재활 복지와 구령 운동이 바탕이다. 발달장애인 육구 분석과 만족도를 높인다. 일자리 창출도 목적 중 하나다. 이 교육을 받은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시종 존댓말을 썼다. "발달장애인에게 늘 존댓말을 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몸이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결박품이지요. 자폐, 지체 등 장애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름의 능력'(Differently Able)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재능과 개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가 끝날 무렵, 김 교수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대학에 가게 해 주세요" 등 축복기도를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분당영광교회 영광부는 2015년 10월 창립했다. 당시 나사렛대에 다니는 한 지적장애 학생이 "교수님, 바이블스터디 해 주세요. 저희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영광부는 영성지능

부 등 여러 발달장애인 교회 학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설립을 돕고 있다. 그는 이날 성경공부를 마치며 "전국 300여 발달장애인 주일학교 사역 현장마다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섭리와 뜻,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가 장애인 문제에 눈을 뜬 것은 대학 1학년 때다. 대학 캠퍼스 안에 맹학교와 농학교, 지체장애학교, 정신지체 특수학교가 있었다. 운동장에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 서로 동이 바탕이다. 발달장애인 육구 분석과 만족도를 높인다. 일자리 창출도 목적 중 하나다. 이 교육을 받은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시종 존댓말을 썼다. "발달장애인에게 늘 존댓말을 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몸이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결박품이지요. 자폐, 지체 등 장애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름의 능력'(Differently Able)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재능과 개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냐는 질문이다. 자폐를 가지면서 동시에 지능 높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며 실제 고기능 자폐의 경우 지적 능력이 오히려 탁월한 것은 물론 우영우 같이 독특하고 돋보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운증후군 배우 강민휘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강씨는 한 기획사 대표의 헌신적인 사랑과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이를 토대로 영성지능을 개발했다. 다운증후군의 다름의 능력인 사회성과 순진성, 충직성과 매사에 긍정적인 면이 배우로서 우뚝 서게 한 것이다.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는 "드라마에서 우영우 주변 인물들은 그녀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각자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우현(은누리교회 장로) 고려대 명예교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상 부족하고 심리적·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도 주일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 내용과 순서, 분위기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기연 아신대 교수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고(막 9:14-29),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말씀하셨다. 발달장애인의 재활복지를 돕고 함께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소명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는 까닭은 사랑의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굿피플이 준비한 '사랑의 희망박스'가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은 물론 사랑의 나눔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굿피플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홀몸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사랑의 희망박스 21만5000개를 전달해 왔다. 모두 199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소외 이웃 5000가구에 '사랑의 희망박스' 추석 선물

여의도순복음교회·굿피플...저소득·독거·다문화가정 대상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와 국제구호개발기구 굿피플(회장 최경배 장로)이 추석(회장 최경배 장로)이 추석을 맞아 저소득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등 국내 취약계층 5000가구에 1억7500억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영훈 목사

와 최경배 회장, 김전수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장 등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굿피플사에서 전달식을 했다. 이들은 이날 직접 축적밥, 채소 죽, 된장찌개, 미역국, 장조림 등 간편 조리 식품 11종을 상자에 담으며 사랑 나눔에 나섰다. 이목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

호주 밴드 "플래닛셰이커스" 내한, 청년 중심 찬양집회

2일 사랑의교회 공연 현장...수천명 2시간 동안 찬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I love you, Jesus!)세계적인 CCM그룹 플래닛셰이커스(Planetshakers)가 한국교회를 흔들었다. 20~30대 청년 중심 청중 수천명은 2일 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공연 '2022 플래닛셰이커스 Live in Seoul'에서 플래닛셰이커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거의 2시간 내내 목소리와 몸으로 찬양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유명 워십밴드 내한은 처음이다. 플래닛셰이커스 다음세대 워십팀 '플래닛 붐(Planet Boom)'이 시작의 문을 열었다. 플래닛 붐은 관객을 모두 일으켜 세운 뒤 어깨동무를 하고 신곡을 가르쳤다. 한국 청중을 고려해 "감사합니다"가 반복되는 곡도 준비해 환호를 이끌어냈다. 관객들은 플래닛셰이커스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춤을 쳤다. 플래닛 붐이 힘합 스타일로 열기를 올린 뒤 플래닛셰이커스

가 등장했다. 플래닛셰이커스는 세련된 전자음악, 화려한 영상, 감각적 댄스 등으로 가장 현대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플래닛셰이커스는 "과거 한국 공연 후 호주로 돌아가 한국교회 청년들은 정말 열정적이라고 자랑했다"며 "전 세계 어디에 가셔도 여러분과 같은 청중을 만날 수 없다"고 인사를 했다. 2000년부터 30여개 앨범을 발매한 플래닛셰이커스는 2018년 처음으로 내한했다. 플래닛셰이커스는 5000명에 가까운 청중들 섹션별로 나눠 각각 다른 멜로디를 부르도록 연습시켰다. 즉석에서 합창을 하게 한 것이다. 워십 리더 조스 헌트는 암 수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했다. 그는 "지난 1월 아시아 공연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빨리 받게 됐고 수술 후 깨끗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비행기에 올

랐다"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자"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수정(32)씨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동안 우리 부부는 영화는 물론 공연을 거의 못 갔는데 지인이 이 공연 티켓을 선물해줘서 갑자기 오게 됐다"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찬양예배라는 느낌을 받았다. 찬양가사와 멜로디에 몸과 마음을 마음껏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했다. 플래닛셰이커스는 사랑글로벌아카데미(총장 오정현 목사·SaGA) 초청으로 내한했다. 3일 한 차례 공연이 더 있다. 공연 주관사인 CCM 레이블 인피니스 관계자는 "오늘 저녁이 거의 다 찼고 내일은 스탠딩석 300석을 포함해 다 매진됐다"고 말했다. 플래닛셰이커스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Nothing is impossible)' '예수 아름다운 구원자(Beautiful savior)' '켜라(Turn it up)' 등으로 유명하다.

'내 동기가 간다' ...신대원 동기들의 선교사 파송 작전

회갑넘긴 김성철·우제영 선교사 부부 네팔 현지 신학교로

회갑을 넘긴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 부부가 택한 제2의 인생은 선교사였다. 안정적인 목회 활동을 접고, 두 달 뒤 향하는 목적지는 '히말라야의 땅' 네팔이다. 인생의 후반전을 넓고 편한 길 대신 좁고 불편한 길을 택한 것이다. 네팔신교단체인 '러브네팔'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교회(순은탁 목사)에서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주인공은 김성철 목사·문영신 사모 부부와 우제영 목사·윤영주 사모 부부 두 가정이다. 이들은 2013년 출범한 러브네팔이 처음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다. 김 목사와 우 목사는 네팔 현지에 있는 네팔새언약신학교(NNCC·총장 권승일 목사)에서 각각 음악 및 교육 선교사로 현지 신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흥미로운 건 이번 선교사 파송은 신대원 동기들이 주축이 됐다는 점이다. 김 목사와 우 목사는 장로회신학대(총장 김운용) 신대원 86기 동기다. 이들을 파송하는 러브네팔 역시 장신대 신대원 86기 동기들이 주축이 된 선교 단체다. 러브네팔 이사장인 순은탁 목사와 네팔새언약신학교총장인 권승일 목사도 같은 기수다. 신대원 동기들이 동기 목회자를, 동기가 섬기고 있는 네팔 현지 신학교에 선교사로 보내는 셈이다.

회갑을 넘긴 우 선교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8년 넘게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현장 목회자다. 출석 교인만 800명에 달한다. 그런 그가 왜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려는 걸까. 그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문득 '세월을 아끼라'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우 선교사는 "은퇴할 때까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우 선교사는 현지 신학생 육성과 전파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섬길 예정이다. 네팔은 국도의 절반이 험악한 산악 지대다. 지형적 특성 탓에 국내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이들을 위해 NNCC는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 강의하는 지방신학교를 설립했다. 현재 13개 지역에서 400여명의 신학도들이 수강하고 있다. 50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NNCC의 목표다. 우 선교사는 "한 명의 신학생은 한 개의 교회와 같다"며 "한 개의 씨앗을 뿌리면 열 개 이상의 열매를 맺는 곳이 네팔"이라고 강조했다. NNCC의 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만큼 신학생 배출이 곧 교회 성장과 직결된다.



김성철(62) 선교사는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했다. 서울에서 10년간 목회를 이어오던 그는 2018년 네팔 단기선교를 계기로 음악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당시 그는 악보도 모르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네팔 아이들의 재능을 눈여겨봤다.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만 받을 수 있다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파가 앞당겨질 수 있다면 충분하다"며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쓴 선교사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되려할 차례"라고 덧붙혔다. NNCC는 2013년 네팔 동부 이타하리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신학교다. 네팔 수도권 카트만두에서 무려 차로 15시간 떨어져 있는 오지다. 두 달 뒤 김성철·우제영 선교사는 NNCC의 첫 번째 한인 교수가 된다. 이날 파송예배에는 사라드 K.C NNCC 학장과 네팔침례회 총회장인 마렌드라 장 목사를 비롯해 가족과 신대원 동기, 성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러브네팔 이사장인 손 목사는 "선교사가 거주하기 힘든 나라로 달려가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희생 정신과 마음이 너무 귀하고 거룩하다"며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기도를 당부했다.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에 기독교 아예 빠졌다"

불교 유교는 명시...근대화 현신한 기독교 역할 교과서에 추가돼야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공헌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 아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시안에는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부분 성취기준과 관련해 '근대 이전의 사상과 문화의 특징을 불교와 유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개항 이후 큰 역할을 했던 기독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근대 이전 한국사 중심에 불교와 유교만 있었음을 분명하게 한 반면 근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문명을 이끄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

교라는 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기독교가 근대화 건설에 이바지했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도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듯이 개항 이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런 언급이 종교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안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선 안양대 교수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나올 교과서에 기독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독교만 배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항 이후 학교 병원 등을 세우고 근대화에 헌신한 기독교의 모습이 공정하게 기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공청회와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교의 창 (201)

송중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케임브리지의 7인 (The Cambridge Seven)

1885년 2월 2일, 케임브리지 대학 길드 홀(Guild hall)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곳에서는 케임브리지 7인의 간증집회가 있었다. 저들을 대표한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땅 끝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으면 영국에 있는 우리도 어둠의 세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빛마저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당시 부유한 가문의 자녀들로서 전도양양(前途洋洋)한 청년들이 선교사로 간다는 소식은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다. 그 과정은 영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班響)을 일으켰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까지 이들이 쓴 간증집을 읽고 기뻐했다고 한다. 그 이후 137년이 흘렀다. 지금은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선교도 위기에 봉착해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케임브리지 7인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 청춘을 초개(草芥)처럼 던질 일꾼들을 찾고 계시지 않으실까?

1. 찰스 토마스 스텐드(Charles Thomas Studd): 1860~1931

W. Eton College와 Trinity College, Cambridge (B.A.). 찰스는 백만장자인 아버지 에드

워드 스텐드(Edward Studd)의 막내아들이었다. 그는 당시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로 인정을 받았고 그 명성과 함께 방황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형 조지가 위독하게 되면서 세상의 명예와 찬사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무디의 설교를 들으며 자

2. 몬태규 헤리 보챔(Montagu Herry Proctor-Beauchamp): 1860~1939

Repton School & Trinity College (BA). 교구 목사 준비. 그는 남작의 아들이었다. 보챔은 스미스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같은 조정 팀이

College, Cambridge (BA). 그는 런던의 유명한 외과의사의 아들이었다. 스미스는 무디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조정(rowing) 팀의 주장이었는데, 조정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스미스는 키나 스텐 스텐드의 영향으로 1880년에 그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중국의 북부에서 사역하였으며 1931년 중국에서 숨을 거두었다. “오,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최소한 2만 5천 이상의 영혼의 집을 내게 지우소서.”

4. 윌리엄 윌튼 카슬(William Wharton Cassels): 1858~1925

Repton School & St. John's College (B.A.). All Saints, South Lambeth 교회 부목사. 그는 매우 조용한 청년으로 조

기병대 중위. 그는 동생인 아더의 설득 가운데 무디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세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영적인 고뇌 끝에 1884년에 그리스도께 생을 바치기로 결단하였다. 그는 1892년 건강문제로 영국으로 돌아왔으나 그 마음은 언제나 중국에 있었다. 그는 일곱 번이나 선교지를 방문하였는데 보통 시간을 연장하여 머물렀다. 그는 1908년 영국에서 오순절 운동을 주도하였고 오순절 선교의 리더 역할을 하였으며, 1938년 영국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가장 큰 평화와 행복을 얻었으며,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하시길 권합니다.”

6. 아더 폴힐 터너(Arthur T. Polhill-Turner): 1862~1935

Military Academy. 포병 중위. 그는 영국 육군 장군의 아들이었다. 케임브리지 7인 중에서 유일하게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 아니었다. 디슨은 무디의 집회를 통해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었다. 디슨은 후에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 중국내지선교회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그는 1935년에 은퇴했으나 1945년까지 중국에 머물렀으며 일본 수용소에 억류되기도 하였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 해 1946년 런던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의 삶은 변했다. 이방에는 복음을 전하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 아제 나는 이 일에 나의 생명을 바치리라.”

맺음말

1885년 2월 5일, 열렬한 환송 속에 케임브리지 7인을 태운 배는 영국을 떠나 3월 18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이렇게 시작된 저들의 헌신은 중국에서 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1886년 미국에서 발족된 학생자원 운동(SVM)이다. 여기를 통해 20,50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은 결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 저들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것은 세상의 야망, 권력,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 고독한 길, 영광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변발을 하고 수업을 짊으며 중국웃을 입은 케임브리지 7인은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빛을 반짝거릴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숭고한 결단과 헌신이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전승되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가슴속에 울림이 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jrsong007@hanmail.net

가치(價値)가 큰 것일수록 희생의 대가를 요구한다.
케임브리지 7인은 선교를 위해 야망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았다.
저들의 숭고한 결단과 헌신이 오늘 대학 청년들에게도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다른 6명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서 나아갔다. 이후 그는 인도 선교를 하였고 53세가 되던 1913년,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중앙아프리카로 갔다. 찰스는 그곳에서 18년 동안 선교를 하다 1931년 7월 71세로 사망했다. 이때 7천여 명의 아프리카인이 그의 장례에 참여했다. 그가 세운 “아프리카 심장 교회(The Heart of Africa Mission)”는 WEC 국제선교회(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의 전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었다. 그는 친구인 스미스와 기독교생연합회의 회장인 키나 스텐 스텐드(J. E. Kynaston Studd)의 중보기도 가운데 1881년 그리스도께 헌신했다. 보챔은 중국에서 1911년까지 사역하였다. 영국에 돌아온 그는 영국 육군의 군목으로 일하였다. 보챔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중국 선교사로 나갔다. 보챔은 1935년 중국에서 사역하는 아들의 선교지에 갔고 1939년에 아들의 선교본부에서 숨을 거두었다.

3. 스탠리 페리 그린 스미스(Stanley Peregrine Smith): 1861~1931

W. Repton School & Trinity

정팀에 속했다. 카슬은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중국내지선교회(CIM)에 지원했다. 헌데 그의 어머니가 가로막았다. 그녀가 후에는 마음을 바꾸어 허드슨에게 편지를 보냈다. 훌륭한 아들에게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중국의 산시 성에서 출발하여 서부지역으로 갔다. 그는 1895년 중국 서부의 새 교구 감독이 되었고 1923년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5. 세실 폴힐 터너(Cecil Henry Polhill-Turner): 1860~1938

Eton College & Jesus College, Cambridge. 제2 근위

Eton College & Trinity Hall, Cambridge (BA). 교구 목사 준비. 그는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무디 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났다. 세실과 아더는 케임브리지 7인 중에서 유일한 형제였다. 아더는 목사로 임직 받고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였으며 1900년의 의화단 사건 때도 중국에서 서부지역으로 갔다. 그는 1928년 은퇴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1935년에 숨졌다. “해외선교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점진적이었다.”

7. 디슨 에드워드 호스트(Dixon Edward Hoste): 1861~1946

Clifton College & Royal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2장 / 절기, 안식년 그리고 두 길(레 23-27장)

무교절

‘무교절’은 양력으로는 4월인 봄 절기로 1월 15일 날부터 7일간 지켜졌습니다(레 23:6). 무교절은 ‘유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해서 ‘무교절 절기’라고도 부릅니다(막 14:12).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없는 ‘무교병’ 만을 먹어야 합니다(출 12:15,18,20,13: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나갈 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 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밤에 애굽을 급히 떠났습니다(출 12:33,34).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반죽으로 떡을 해서 먹었는데(출 12:39) 바로 ‘고난의 떡’입니다(신 16:3).

그 무교병은 원어로 ‘뭉다, 장사하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양으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사건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다시 사는 사건은 무교절 절기 안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세레’라고 하며(고전 10:1,2) 세레는 바로 ‘영적인 죽음’의 의식을 말합니다(골 2:12).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입니다(롬 6:3,4). 또한 무교절이 7일간 지켜진

것은 초실절 이후에도 계속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교병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 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잘 못된 교훈’이고(마 16:12/ 막 8:15) ‘외식’이고(눅 12:1) ‘음행’이며(고전 5:6-8)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첫 곡식을 추수하여 첫 곡물 한 단을 요제로 흘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곡물 단을 여호와 앞에 흘려서 열납되도록 드렸습니다.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흘려서 ‘살리고 깨우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라 함은 그 다음에 줄줄이 그에게 붙은 자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고전 15:22-24).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하나이자 묵음인 ‘한 단’을 드린 것입니다(레 23:10). 그 단에 묶인 자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와같이 성도의 죽음은 잠 자는 것과

도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은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새 소제는 곧 홍해를 건너 새로 태어나 하늘의 양식 만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죄인 된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칠칠절에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의 칠칠절인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행 2:1-4). 율법을 받음으로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를 발견할 것입니다(행

5:17). 성령님이 거둔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고후 5:15). 이제 그들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입니다(갈 2:20).

나팔절

나팔절은 양력으로는 10월인 가을 절기로 7월 1일 날에 지켜졌습니다(레 23:24).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 이후 3달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나팔절이 되기까지는 특별한 성회가 없고 ‘월삭’과 ‘안식일’에만 모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나팔절이 되면 그 동안 농사를 짓느라 누리지 못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레 23:24,25).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3달 동안 지은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성전으로 모여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칠칠절이 지나고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나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안식의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이라고 선포하고(마 24:30,31)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강림하심을 선포합니다(살전 4:16,17). 예수님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합니다.

hfamilyfa@gmail.com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를 발견해야 된다.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기는 무의미하고 지루한 명절일 뿐

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죄가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막 14:22/ 요 6:51).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약의 성취입니다(고전 15:3,4).

초실절

초실절은 양력으로는 4월인 봄 절기로 1월 16일 날에 지켜졌습니다(레 23:11). 초실절은

예수님은 초실절 제사가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려졌듯이(레 23:11)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대로(마 16:21, 17:23, 20:19, 27:63) 금요일에 죽임 당하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날 부활 하셨습니다(마 28:1-6/ 막 16:1-9/ 눅 24:1-6/ 요 20:1-10). 바울은 예수님을 잡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증거하였습니다(고전 15:20/ 골 1:18). 또한 초실절에 첫 소산물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같습니다(요 11:11-14/ 고전 15:20-23/ 살전 4:13-18).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칠칠절

칠칠절은 양력으로는 6월인 여름 절기로 3월 7일경에 지켜졌습니다(레 23:15,16). 이때를 ‘칠칠절’(출 34:22/ 민 28:26/ 신 16:10,16)이라 하고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출 23:16)이라고

2:37-42). 그래서 칠칠절은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40일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행 1:1-5)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눅 24:49).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행 2:1-4). 성령은 약속으로 오신 것이기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로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디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 중심으로 삼시다 (삿 9:56~57) 찬 93장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는 세겟 사람들에게 동향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겼고, 건달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겟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폭정에 그를 배반하고, 동행세를 약탈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겟 사람들을 미워하여 밭에 일하러 나온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렸으며

망대를 불 지르고 남녀 약 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고 옆에 있던 청년에게 요청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폭력과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세겟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삿 11:1~11) 찬 328장

하나님께서서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며 어렸을 적부터 다른 아들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었고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도 사

용하십니다. 입다는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때문에 입다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군이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많고 적음, 학위나 외모 등으로 사람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배자 (삿 11:29~40) 찬 29장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겼고, 서원대로 가장 먼저 맞이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깊은 종교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서원을 했

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종교심이 깊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죽이게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현장에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목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삿 16:19~20) 찬 524장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정도로 힘이 셧습니다. 혼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기도 했고,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만난 세번째 여인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녀를 매수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물었

고, 결국 삼손은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들릴라가 머리털을 밀자 삼손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결박'당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금 점검합시다 (삿 16:28~31) 찬 352장

머리털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고, 삼손은 양팔로 두 기둥을 부러뜨려 그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날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삼손의 비극은 눈이 뽀하거나 쇠사슬에 묶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

으로서 그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착각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토 수명(壽命)이 아닌 사명(使命)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삿 18:19~20) 찬 520장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 레위 청년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단 지파 사람들이 들어닥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안에 개인 전속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지파 제사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합니다. 그 레위 청년은 기뻐하며 예복과 드라빔과 우상을 챙겨서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요나단'(삿 18:30)은 그 사명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의 더 큰 보상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명 따라 살지 않고 수명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 (12)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성경이 선례들을 제시하며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사가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증거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독교교육이 인간의 본성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기독교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세상의 상황과 추세가 기독교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독교교육에 연관된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프로그램들의 사역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그것들을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기독교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강조적인 구성요소 그리고 지원적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구성요소는 교회의 본질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로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부릅니다. 기본 구성요소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회중이 규칙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보다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성요소는 교회가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한 분야나 하나의 구성원그룹을 강조합니다. 이를 강조적인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또 어떤 구성요소는 다른 구성요소들을 뒷받침하여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므로 지원적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는, 첫째, 교회를 이끄는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신자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며,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공부에 관한 기관과 프로그램들도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경공부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의 교제권으로 인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참여자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훈련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들도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제자훈련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삶 전반에 관해 안내하고, 회원들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회사와 신학과 기독교 윤리와 침례교 정체성 등을 가르치고, 리더들의 사역을 강화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교를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에 관해 배우며 가르치고, 선교에 동참하고,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와 사역을 생활화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성요소 다섯째는 음악 사역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회중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교회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고, 교회의

기관과 프로그램들에게 음악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음악에 관련된 장비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의 강조적인 구성요소에는 개교회의 상황에 따라 많은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사역, 청지기사역, 전도 훈련사역, 선교비전사역, 직업안내사역, 학생사역 등을 위한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이 강조적인 구성요소입니다.

가정사역은 부부, 부모, 자녀 양육, 노인, 독신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청지기사역은 크리스천 청지기들을 개발하고, 교회가 협동 선교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전도훈련사역은 전도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교회가 전도에 동참하도록 돕고, 교인들이 개인 전도를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특별한 행사나 전도대회 등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선교비전사역은 선교의 필요나 기회를 파악하고, 선교 대상에게 다가갈 전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담당 기관들을 지원합니다.

직업안내사역은 크리스천의 직업활동에 관해 성경적인 교회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도합니다. 학생사역은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들이 교회회원이 되도록 인도하고, 사역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지도하고,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예배하도록 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하고, 세계의 문제와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기독교교육의 지원적 구성요소에는 레크리에이션사역, 미디어사역, 행정사역 등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사역은 레크리에이션의 방법, 자료,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교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교회가 전체적인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디어사역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미디어 장비와 도서관을 제공하고, 미디어 장비와 도서관 사용을 장려하고, 미디어 기술을 가르칩니다. 행정사역은 교회가 사역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의 인적, 재정적, 물리적 자원이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감독합니다.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는 다양합니다. 크게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강조적인 구성요소와 지원적 구성요소로 구별되고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 그리고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과 사역 중에서 기본적인 요소에 좀 더 치중하고 교회의 자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해 리더들은 모든 구성요소와 그 사역들을 정기적으로 살펴 평가하고, 재정적하고, 재정적해야 합니다. 교회 내외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요소는 모습이 바뀔 수 있고 강조적인 요소와 봉사적인 요소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리더들과 회중이 구성요소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인하스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키르기스스탄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1. 공동체 사역을 돌아보며

13년 전 2009년에 두 여학생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 살았던 집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갈 때 없는 여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에 집을 사들이고 두 여학생과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 우리 가정이나 두 여학생이나 문화와 생활의 차이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예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 주려고 했는데 결혼 후 교회를 떠났을 때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여학생에게 결혼 이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얼마가 되어서 다시 교회에 돌아

왔습니다. "이라"는 교회 통역관으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의 비전이 13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올리비아, 니끼따)의 엄마가 되어서 그 비전대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흐미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의 비전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두 아이(아라파트, 나자르)의 엄마가 되어있으며, 주님이 13년 전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졌던 비전이 헛수고 가 아니었으며, 주님께서는 그 비전이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는 현지 학생들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짐은 눈이 녹듯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짐의 자리에 사회생활과 대학 생활을 위해서 비취에게 와서 오갈 때 없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긍휼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사역 시작을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사역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한 영혼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사

역이기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희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학생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일 아침 9시면 교회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키르기스스탄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어를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어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기 위해서 안 선교사가 키르기스어로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몇 주일은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 남성 한 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모든 성경 자료를 다 수거하였는데 그 남성이 자료를 보여 달라며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키르기스스탄 모든 어린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이후 항상 주일마다 교회 문 앞에서 있던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고 지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키르기스스탄은 유행처럼 많은 여학생이 히잡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부부가 이 음성에 더 무릎 꿇고 한 영혼을 찾고 또 찾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여름 사역을 돌아보며

1) 교회 수련회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키르기스스탄 사람이라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이스쿨 호수에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고 아픈 성도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함께 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페틀라나 성도는 30년 간 한번도 이스쿨에 온 적이 없다가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영을 하며 힘을 얻고 위로 받는 것을 보며 저희들이 기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도는 요즘 예배와 멀리하고 있어서 딸인 이라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여름성경학교
코로나이기에 올해에는 단기선교팀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삼광교회에서 8월에 오셔서 두 교회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바실리가 교회 문 앞에 있다가 오지 않았던 키르기스 학생들과 드문드문 오던 학생들도 참여해 말

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레닌스카 행복교회는 코로나 이후 오지 않았던 학생과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1. 공동체 사역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복음을 위해 더 무릎 꿇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3. 두 행복교회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4.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현지 사역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다니엘, 아이잔 선교사 올림

선교 편지

캄보디아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소식과 함께 안부 전합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8월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코비드로 3년 집을 방문 못해 이번 방학에는 거의 방학을 집에서 보내고 8월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특히, 그동안 코비드로 진행하지 못했던 목회자 연장 교육을 월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금요일 점심 먹고 폐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도움이 없다면 진행할 수 없는 일로 모두가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잘 감당해 주어 학생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가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1. 목회자 연장 교육

(1) 3년만에 처음 진행 25명 참석, 약 10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 분들을 돕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시며, 앞으로 이 분들을 사역하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나눠야 하는지에 고민하며, 설문 조사와 대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로 기도하며 다음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 이번엔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보다 사실적으로 필요한 전도, 영성 훈련, 개인이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두고 저녁 강의를 마치면 함께 캄보디아 나라를 위해 본인들의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좋은 시간들이라고 고마워 하였습니다.
(3) 이번엔 저희가 캄보디아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 아주 귀한 간증을 모든 목사님께 듣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곳 캄보디아에 거의 99%가 현지인 목회자는 외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에 영적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왜 늘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은 먹을 것이 없으면 밤에 간장만 부어 먹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심일조를 신앙생활 가르친 지금 약70명 교인으로 한달에 \$700 정도의 헌금이 모여져 자립은 물론 다른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며 영적으로 힘이 나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믿음으로 가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2. 가을 학기 개강

(1) 8월 23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15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이라는 설교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준비하는 시간임을 강조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는 시간도 가지

며 은혜로운 개강예배도 드렸습니다.
(2) 이번 새롭게 입학한 학생들은 학부 5명(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목회학 석사 2명(페루, 캄보디아), ThM 1명(인디아)으로 점점 주변 국가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소명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3) 전체 등록한 학생은 모두 36명으로 인디아 학생 4명, 베트남 6명, 라오스 2명, 미얀마 1명, 네팔 1명, 페루 1명, 필리핀 2명, 캄보디아 19명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지길 기도합니다.
3. 이번 학기에 함께 하시는 김광철 선교사님: 전번 학기에 약 10일간 방문 하셨습니다 가신 김광철 목사님이 이번 학기를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1.5세로 동부 웨스트민스터 출신, 시드 선교회 출신으로 우간다에서 10년간 선교사역을 하시고, 선교 훈련원 원장으로 섬기시다 다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다시 우간다로 가려던 발길을 감보



다야로 오게 하셨는데 김 목사님 마음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는 저희 신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며, 영성 훈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4. 체육관 공사 현황: 우기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 없이 일하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상보다 완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우리에겐 물이 풍족하여 살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면 공사가 늦어지니 고민이나 이 모든 것도

되어지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사할 뿐입니다.
기도제목
1. 가을 학기동안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건강하며 은혜충만하도록
2. 아시아 신학 협의회 (ATA) 인가 받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체육관 건축이 무사히 준공되고 부족한 시공비 (\$18,000)이 채워지도록
4. 김옥경 선교사의 눈물길 질환이 속히 치유되도록
늘 저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훈 총장 드림



Latin America Future Mission Strategy and Leadership Forum

남미 기독교 지도자 초청 선교대회

리마 행사 Dec 9-14, 2022 (5박 6일)
 페루 국가 조찬 기도회 Dec 10, 2022
 남미 기독교 지도자 선교대회 Dec 12-13, 2022
 Sheraton Hotel Convention Center, Lima, Peru

선택-쿠스코, 마추픽추 Dec 13-16, 2022 (3박 4일)
 쿠스코 지역 목회자 연장교육 Dec 14, 2022
 잉카의 도시 쿠스코 문화 유적지, 마추픽추 방문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iea@midwest.edu

주관: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Peru
 공동주최: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Midwest University
 협력: 페루 국가미래전략 연구재단, 페루 국립센마르코스 대학교(대학설립 1551년), KWMC, KWMA, KWMF, KIMNET
 협찬: 페루 TV 방송국, CTS TV, CGNTV



인/터/뷰

퀸즈장로교회 김도현 목사

TICI, 위태로운 이민교회,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목회적 연결점을 찾자!

‘전통적 혁신’ ... 1세대(KM) 리더가 ‘전통적인’ 부분 제공하고

2세대(EM) 리더는 ‘혁신’ 부분을 지원하는 혁신적 합동 목회의 실천 가능성 구축

미국 이민의 역사 가운데 미국에 한인교회는 한인들과 삶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교회의 모습에서 1세대들이 가졌던 신앙의 전통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점을 찾자 TICI(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S INITIATIVE) 컨퍼런스가 트리니티 신학교

에서 시작됐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한인 이민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문화를 가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소수민족들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번 첫 TICI 연구에 참여하게 된 김도현 목사(퀸즈장로교회 영어예배)를 통해 TICI에서 현재 연구 진행 상황과 발견된 점들을 들어보았다.



TICI 컨퍼런스에 참여한 퀸즈장로교회 팀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TICI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요?

TICI는 "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S INITIATIVE" 즉, "이민 교회 회중 부흥 발의"를 뜻합니다. Lilly Endowment Inc.는 Trinity의 Paul G. Hiebert Center for World Christian and Global Theology 프로그램인 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 Initiative(TICI)를 설립하기 위해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 총 100만 달러의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이 센터는 주로 미국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중국인, 한국인, 나이지리아 이민자 커뮤니티를 섬기는 많은 교회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TICI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된 전국 12개 교회 중 하나입니다. 2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12개의 이민자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연구 과정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가 다른 세대에 걸쳐 발견되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지는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들은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자신들이 속한 지역 밖에 민족들로부터는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목표는, 인종적 경계를 넘어 주변의 타 커뮤니티에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독특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한 지붕 아래 4개 교회(한국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가 함께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 교회는 세대 간, 문화 간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 많은 2세대 영어 사역자들이 이민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이민교회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TICI를 통해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간 관계 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다른 문화권의 커뮤니티 간의 관계 역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TICI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우리는 2021년 10월에 TICI 연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TICI의 핵심은 모든 참여 교회가 1세대 및 2세대 리더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당회장 김성국 목사님과 교육담당 장로 최원일 장로님이 1세대 대표입니다. 저는 EM 담임목사로서 2세대를 대표하고, 교육 목사인 차나다니엘 목사와 두 명의 EM 집사인 제니 황, 김혜린 집사가 영어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TICI 팀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교회의 1세대와 2세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KM과 EM 사이가 견고히 연결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잘못된 편견과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한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추측들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TICI 모임은 함께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추측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11개 이민자 교회와 TICI 리더십과 함께 매월 온라인 Zoom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이민자 교회들도 함께 이 힘든 여정을 걷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TICI 그룹은 매년 봄과 가을에 두 번 직접 모여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공유하고 세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사역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집사인 제니 황, 김혜린 집사가 영어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 TICI 연구과정을 모두 마친 후 어떤 것들이 성취되고 기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사명과 공통적 비전을 향해 힘쓰며 4개의 교회(한국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와 한 가족으로 더욱 가까운 가족과 같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개 교회 회중 모두에게서 1세대와 2세대 지도자 사이의 건강한 파트너십

을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TICI 이사이자 Trinity 신학교의 교수인 Dr. Peter Cha 교수는 "Navigating Future" 책에서 "전통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 혁신"의 개념에서 1세대(KM) 리더 구성원은 "전통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반면 2세대(EM) 리더 구성원은 "혁신"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실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세대(EM)는 1세대(KM)의 목회에 있어서 합동 목회를 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회중 상황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길의 기초를 닦아 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실질적 행동 단계들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에서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 한인 이민교회만이 이러한 1세대, 2세대 간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타 문화권 소수민족교회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되는지요?

TICI에는 한인교회 외에 중국인, 나이지리아인 이민자 교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민족들이고 다른 문화권에 있었지만, 모두 유사한 문화 간, 세대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민자 교회의 대부분은 1세대와 2

사이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배워가고 연구하는 이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직면한 독특한 축복과 도전, 즉 1세대와 2세대의 어려움 뿐 아니라 4개 교회가 한 교회로 모이는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세대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이 여정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민자 교회들도 그들의 여정에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중년 나이지리아 교회 목사는 "모임에서 자신의 교회 역 시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퀸즈장로교회와 같이 1세대, 2세대의 갈등만 만이 아닌 네 개의 다른 문화권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어려움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민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은 한인들만이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교회들이 모두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2세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와 이민사를 공부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인 이민교회에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세대는 2세대가 미국에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목회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이견들, 여전히 1세대가 2세대를 어린아이로 보는 시각에 대한 2세대의 고민, 기독교 교육과 자녀 양육에 있어 문화적으로 겪는 갈등 등 같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이러한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 많은 2세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끼며 이민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침묵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EM이 일정 수의 성도로 성장하거나 재정적 자유와 분리를 성취하게 되었을 때, EM 내 장로 임직을 이루게 되는 경우 많은 EM 그룹들이 소속됐던 이민교회를 떠나 독립한 바 있습니다. EM이 분리되는 이유는 EM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KM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KM과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있어 슬픈 일이었습니다. EM이 분리되 나가거나 밀려나가게 되면 한인교회는 새로운 EM 사역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불건전한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한인 이민교회의 정해진 미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미래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퀸즈장로교회의 경우 한국어권과 영어권만이 아닌 중국어권과 러시아어권 사역이 함께 동역하는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모델이 다른 모든 이민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각 사역마다 미래를 함께하고 한 비전을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며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TICI의 남은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이민교회의 사역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워홀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린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움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